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7월 1일)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지역 수해복구에 스님들도 발벗고 나섰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12일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과 함께 구례읍내서 수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한데 이어 이날 오후 구례 피해지역에서 수해복구에 직접 뛰어들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 맨오른쪽)을 비롯한 스님들은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궂은 땀을 흘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마 할퀸 한반도… 불교계 자비행 '감동'

50여일 이어진 호우에 전국 사찰 피해

구례 화엄사 지역 복구에 동참
동행 등 짜장 도시락 전달 봉사
수해 지역에 자비 손길 이어져

불교문화재 7건 비 피해 발생
경상 · 전라권 사찰 수해 집중

신성민 · 하성미 기자, 양행선 · 조동제 지사장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를 치유하는데 불교계가 적극 발 벗고 나섰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500mm 폭우가 내렸던 구례에 위치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다. 화엄사 사부대중은 8월 12일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 양봉농가와 오리 축사에서 복구 지원활동을 펼쳤다. 앞선 8월 8일에는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하자 화엄사 경내에 임시 대피소를 설치해 주민 29명에게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상임이사 일화, 이하 동행)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구례 화엄사 경내에서 물품과 식사 등을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했다. 이번 지원 활동에는 불교계 NGO인 '다함께나누는세상 다나'(대표 탄경)와 화엄사, 쌍계사 등 지역 본사들이 동참했다. 동행은 3일동안 3000인분의 짜장밥 도시락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봉사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동행은 라면과 생필품 등을 넣은 긴급구호키트 2000개를 제작해 수해를 입은 구례군청과 하동군청에 각각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짜장공양과 일회용 키트를 마련했다.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한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분들도 조금 더 힘을 내어 하루빨리 피해가 극복되는데 더욱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찰과 단체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13일 조계사 행복나눔가피봉사단(단장 김문주)과 함께 구례군에 세면도구세트 1000개, 국수 1.2톤, 컵라면 1000개, 생수 5000개, 초코파이 5400개 등 2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가장 먼저 수해를 입은 부산 지역에서도 이재민 구호품 전달과 복구 봉사 등이 활발히 이뤄졌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정분남)은 8월 12일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수해 이재민 돕기 지원 물품 전달식'을 열고 햇반 1100개, 컵라면 650개, 3분 카레 300봉지, 김 108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여 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전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도 8월 5일 부산 남구청에 각 300만원 씩 총 600만원을 수해성금으로 전달했다.

호남에서 진안 쌍봉사 보경스님과 섬김 봉사단은 8월 7~9일 3일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용담면 주민 등 5개면 이재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임시대피소를 방문해 급식 도시락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10일 진안군 청소년꿈터 지역아동센터 등 4개 기관에 도시락 210개를 전달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한 소임 스님들은 8월 10일 남원 교구 사찰인 성도암, 대명사, 미륵암을 방문해 산사태로 인해 토사로 뒤덮인 도량에서 복구작업 중인 스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50일 가량 이어지고 있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경상 · 전라 · 충청권 사찰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문화재청에서 통해 집계된 사찰과 불교문화재 피해 현황은 총 40곳에 달한다.

문화재청이 8월 12일까지 집계한 문화재 피해 현황에 따르면 국보 1건 보물 4건, 사적 17건, 국가민속문화재 10건, 천연기념물 3건, 명승 5건 등 총 47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불교문화재는 총 7건이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국보 제10호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은 문화재 주변 담장 일부가 파손됐으며, 사찰 사면의 일부가 유실됐다. 문화재청은 담장보수와 주변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봉정사는 경내 만세루 누수 및 석축 배부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변 정리를 진행하고, 관람객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2차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시행 중이며,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복구하고 문화재 주요부분의 피해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 등 국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원상복구할 계획"이라며 "장마 종료 이후 문화재 피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긴급보수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의집 운영미비 확인 '경기도 책임론'도 제기

경기도 8월 11일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후원금 · 운영 미비 재확인 수준
부정적 여론…"뼈 깎는 쇄신을"
"관리감독 관할 지자체도 책임"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에 대한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나눔의집이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조사결과 핵심사안인 후원금 · 운영미비 등은 이미 지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횡령의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내부 제보직원들이 주장해 왔던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기록물 방치 등이 지적사항으로 드러나면서 부정적인 여론과 조사의 편파성 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청 역시 관할 지자체로서 수년간 이어진 나눔의집 운영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키 힘들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8월 11일 정책브리핑의 일환으로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기춘 민관합동조사단 민간공동단장이 발표한 내용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대중에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경기도민관합동조사는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에 이은 추가조사라는 점에서 사회복지계에서도 이례적인 형태로 주목받았지만, 정작 발표된 조사결과는 그동안 광주시청 감사와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 결과로 이미 드러난 후원금 · 운영 미비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후원금 횡령의 정황이나 유용은 없는 반면, 사회복지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는 운영상 문제가 재차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집의 문제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 △결산서 공시 미비 △후원금을 법인 재산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비축한 것 △법인 · 시설 조직과 운영 구분 미비 △이사회 운영 미비 등으로 조사됐다.

송기춘 단장은 브리핑에서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88억 8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에 따라 지자체에 후원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고 할머니를 위한 사용(2억원)하기보다 토지 구입 등 법인 운용(38억원), 요양원과 국제인권평화센터 건립 등 목적사업을 위해 비축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원금 운영과 시설 · 법인의 조직 · 운영 분리 미비, 이사회 운영 미비 등의 문제는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이 진행했던 특별지도점검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어서 기존 조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그쳤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나눔의집은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해 지적사항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후원금 운영상의 문제가 2015년부터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광주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후원금의 모금과 사용, 목적사업 추진 등은 1 ·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지자체 감사 및 행정지도 절차에서 충분히 문제로 지적될 사안임에도, 4년 이상 잘못된 후원금 운영체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없이 개정된 가운데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나눔의집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감사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지 못한 관할 지자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경기도청이 관할지자체임에도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않고,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후 민관합동조사라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하면서 나눔의집이 재차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헌신해 온 나눔의집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비록 후원금 횡령 등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운영 미비에 따른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사회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눔의집 법인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미얀마 스님 性범계 숨기고 포교활동 '충격'

아신 빤딧짜 스님 2016년부터 여성 4명과 성관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대표적인 스승 중 한 사람으로 손꼽혀 온 미얀마 출신 아신 빤딧짜 스님이 성 관련 범계로 환속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스님과 관계를 맺은 여성 신도 중 일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로 판단될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승려의 범계를 넘어 사회법상 '성범죄'에 해당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승 담마야나 선원장이기도 한 아신 빤딧짜 스님은 5월 17일경 일부 신도들이 참여한 SNS채팅방에 자신의 범계와 관련해 '참회문'을 게재했고, 6월 15일 공식적으로 선원을 떠난 후 현재까지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한 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신 빤딧짜 스님은 한국에서 테라와다 불교와 위빠사나 전통 수행법을 확산시킨 대표적인 스승으로 유명하다. 2012년경 한국에 정착한 후 부산서 미얀마 대학생과 한국 불자들을 대상으로 교리와 수행법을 강의해 왔다. 이후 스님을 따르는 수행자들을 중심으로 법승 담마야나 선원을 개원, 선원장으로 활동하며 테라와다 불교 수행 포교에 진력했다. 그래서 이번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 사태는 한국과 미얀마 양국 불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本紙가 입수한 담마야나 선원 내부 글과 다수의 제보자들에 따르면 아신 빤딧짜 스님과 관계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 수는 4명이다. 이 중 한 여성이 올해 5월경 본인의 피해 사실을 담마야나 선원 내부에 공개하면서 그간의 범계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피해사실을 밝힌 A씨는 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마야나 선원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SNS채팅방에서 공개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아신 빤딧짜 스님은 A씨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 접근한 뒤 서울선원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접촉을 거부했지만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사실을 밝힌 뒤 승복을 벗고 한국을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심지어 아신 빤딧짜 스님은 같은 시기 다른 여성신도 C씨와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신 빤딧짜 스님은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 지 3일 뒤인 5월 17일, SNS채팅방에 '참회문'을 게재하고 범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저의 잘못을 엎드려 참회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참회문에서 스님은 "모두 저의 범계로 인해 생긴 일"이라며 재가자 신분으로 참회하며 살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참회문이 담마야나 선원 내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공개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부산에 위치한 담마야나선원 본원의 전경. 선원장이었던 아신 빤딧짜 스님은 2016년부터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범계행위를 했지만, 포교활동을 해왔다.

피해자, 올해 5월 피해 사실 공개

5월 17일 범계인정 참회 후 잠적

담마야나측, 2016년 범계도 은폐

서울과 대구선원 폐쇄 등 파장 커

신도, "비구 아님에도 승가 기만"

"종교계 성폭력 전형" 비판 목소리

이후 서울선원은 즉시 폐쇄됐고 현재 대구선원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부산 본원 한 곳만 운영 중이며, 공식 온라인 카페도 문을 닫았다.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행위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도 충격이다. 테라와다 불교에서 승려의 성행위는 빠라지까(바라이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계로, 교단차원의 징계 형태가 아니라 범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승려 자격이 자동 박탈되기 때문이다. 테라와다 교리에 따르면 아신 빤딧짜 스님은 이미 2016년 범계행위 이후 승려의 신분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아신 빤딧짜 스님은 이를 숨긴 채 지속적으로 교리와 수행법을 강의하고 법문하며 수행자들의 공양과 존경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5권의 책을 출간하며 테라와다 불교 지도자로서 인지도를 넓혔다. 이에 수행자 일각에서는 "아신 빤딧짜 스님이 수년간 신도와 수행자들을 기만하고 속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계율과 교리를 어김으로써 왜곡된 법을 설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개적인 참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 사실이 축소 · 은폐됨에 따라, 미얀마와 한국 불교계에 "아신 빤딧짜 스님이 한국 여성 신도의 유혹에 넘어가 환속했다"는 등의 왜곡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가 높은 이유다.

이에 담마야나 선원에서 수행해 온 신도 및 관계자 40여명은 아신 빤딧짜 스님의 범계사실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아신 빤딧짜 스님의 행위는 수행 지도자가 수행지도 과정에서 알게 된 신도의 심리상태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신심과 신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며 "더욱이 그는 2016년 범계 이후 비구가 아님에도 가사를 입고 공양과 삼배를 받았으며 승가 보시금을 개인적 용도(호텔 숙박비용)로 써오는 등 승가를 모독하고 수행자들을 기만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아신 빤딧짜 스님을 한국에서 출국시키고 한국사회와 한국 테라와다 승단에 그 어떤 직 ·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세종시 테라와다 승단 총림 건립불사와 관련해 불사금을 낸 모든 재가수행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할 것 △범계 사실을 알고도 사실을 은폐 · 축소하려는 부산선원 관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행정적 처리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탄원서는 관련 자료와 함께 주한미얀마 대사관과 미얀마 종교청에 발송된 상태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아신 빤딧짜 스님과 신임 주지 아신 빠라구 스님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부산본원 관계자 겸 재가이사는 "현재 담마야나 선원은 (아신 빤딧짜 스님의) 제자(문중) 스님들이 왔고, 9월경 (불사와 관련한)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스님의 범계사실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김영란 나무여성상담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종교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남성 성직자의 파계이자 성폭력임에도 마치 여성 수행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거나, 은폐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특히 불교계서 출가자가 가진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인지하더라도 주변인들이 지지와 존경을 표하고 있기에 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 해결도 어렵다"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비구 1명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진실을 가리거나 묵인하는 선원 공동체 역시 가해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리 직무정지 이후 법화종 향방은?

법원이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지속된 종단 내홍에 어떤 변화가 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총무원장 서리의 직무를 정지한 이유에 대해 "승려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서리로서 중앙종회의원들을 징계한 행위 역시 '무효'라고 인정해 향후 종단 정상화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화종 종정 도정 스님은 8월 10일 가처분 결과를 수용하고 현집행부 등에 새로운 서리 임명 전까지 일상행정 수행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 집행부 임원 상당수가 자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종단은 8월 14일 원로회의에서 서리 임명을 구체화할 방침이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서리 체제 집행부를 중심으로 차기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8월 5일 법화종 중앙종회가 제기한 총무원장 서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은 종헌 · 종법상 승려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중앙종회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법화종 소속 승려가 아니기에 서리로서의 자격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 "승려 자격 없다" 이례적 판결

종회의원 향한 총무원 징계도 '무효'

종정 스님, 8월 10일 서리 해임교시

법원은 또 지난 7월 총무원장 서리 체제의 집행부가 중앙종회의원 5명에 대한 공권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4월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서리 임명 이후, 서리 체제의 총무원이 집행한 직무의 무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최근 주지 임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영 안정사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화종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원측의 이의신청 가능성은 낮다. 법화종 종정 도정 스님이 8월 10일 법원의 가처분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후 사태수습을 위해, 총무부장 등 현집행부가 차기 서리 임명 시까지 일상행정 업무를 담당토록 당부했기 때문이다.

차기 서리 임명은 8월 14일 예정된 원로회의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새롭게 임명될 서리 체제의 집행부는 前 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인 10월 16일까지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무원장 선거준비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돼, 법화종을 둘러싼 오랜 혼란이 이번 기회에 안정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은 "종단 정상화에 뜻을 함께하는 종도 스님들과 함께, 이제는 정말 법화종이 바로 서고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서리 선출 차주 상보〉

천태종 첫 '법화예찬대회' 연다

10월 24일 구인사서… 9월 1~30일 신청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0월 24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1회 법화예찬대회'를 개최한다.

법화예찬대회는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 전품을 악곡으로 창작한 '법화광명의 노래'를 널리 전하여 정법포교와 불자들의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합창경연대회다. 천태종은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총 30악곡을 창작하여 2019년 8월 25일 한국불교음악사상 처음으로 1400여 명의 합창단이 국악관현악단, 솔리스트 등과 화음을 이루어 전곡을 공연한 바 있다. '법화광명의 노래'는 묘법연화경 28품과 서곡 회향을 합쳐서 30곡으로 구성된 교성곡이다.

이번 합창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은 인원 25명 이상(지휘자 및 반주자는 인원에서 제외)의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이며, 참가신청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대회카페(https://cafe.naver.com/thelotussutra)에서 참가신청서(본 대회 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1매)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합창단 소개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e-mail접수, FAX접수(당일 원본 제출) 등이며 접수처는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교육부(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구인사 교육부)이다. 이메일은 7315edu@naver.com, 전화 (043)420-7315, 7318. FAX (043)420-7399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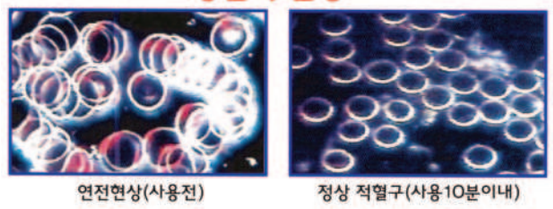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놔파 측정촬영



▶ 목·어깨·허리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아토피·무좀·가려움증·비듬·발뒤꿈치각질·체취 등 피부질환을 없애준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11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구강 건강~

조계종 '행정 · 교육 · 포교'도 유튜브로!

조계종 교육원 · 포교원 유튜브 채널 개설 잇달아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조계종 행정과 교육, 포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유튜브 채널 개설이 이뤄지고 있다. 미디어 시대에 맞춰 각 분야별 유튜브를 통한 홍보와 인재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 이하 포교원)이 8월 10일 개설한 'GO!사리' 유튜브 채널이다. 'GO!사리' 유튜브 채널은 포교원의 불교크리에이터 창작지원사업 결과 선정된 우수 창작자로 구성된 프로젝트로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이는 예능형 콘텐츠다.

'GO!사리' 팀명은 강산 씨의 아이고 절런에서 'GO'를, 찬불가 앙상블그룹 별빛사리에서 '사리'를, 장정윤 작가의 인스타툰 '별세음공주 공덕연'의 구슬이 모여 만들어진 합성어다.

전국각지에서 자생할 뿐만 아니라 환경조건이 나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인 고사리처럼 'GO!사리'도 어디서든 불교매력을 뽐내며 포교에 정진하겠다는 의미다.

리더인 강산 씨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유명해질 수 있을까?' 라는 화두를 갖고 영상을 올리고, 사찰을 찾아 종횡무진할 것"이라며 "불교는 무겁고 어려운 종교라서 다가가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싶은 목표가 있다. 기존 포교 콘텐츠

프로젝트팀 구성해 예능포교 도입

출가자 모집 및 상담도 유튜브로

종단 공식 홍보채널 운영 준비 중

들에서 보인 교육적이거나 신행중심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예능형 포교콘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산 씨는 이어 "조금은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부처님 가르침도 놓치지 않겠다.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시청하고 불교는 어렵지 않고 재밌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GO!사리'(사진 왼쪽)와 조계종 교육원의 유튜브 채널 '출가'(사진 오른쪽)의 화면 캡쳐.

'GO!사리' 팀의 첫 콘텐츠는 현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상태이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업로드 된다. 향후 사찰을 찾아 총 21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도 최근 유튜브 채널 '출가'를 개설했다. 출가자 모집을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민 멘토 혜민 스님과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작가 원제 스님 등이 출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답하는 캠페인 영상이 올라와 있다. 또한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스님과 에세이를 통해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했던 법정 스님 등 불교계 선지식들의 출가 이야기영상도 눈길을 끈다. 출가 동영상 공모 수상작들도 업로드 돼 출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조계종 교육원 관계자는 "유튜브를 통해 출가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고 출가 방법과 수행생활을 바르게 알려 나갈 것"이라며 "향후 출가 주제 홍보 영상과 출가상담사 스님들의 안내 영상 등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도 기획실 홍보국을 중심으로 종단 공식 홍보 유튜브 채널을 준비 중이다. 현재 계정만 개설된 상태로, 홍보국은 현재 운영 방안과 콘텐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 차원의 유튜브 채널 개설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의 경우 1020세대 뿐만 아니라 5060세대들의 접근도 높아지고 있기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때가 왔다"며 "다만 범람하는 유튜브 채널들 사이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미와 단순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불자, 더 나아가 일반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만해 스님 평화정신 만방에 전하자"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

포티락 스님 등 5명 수상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곽채기, 동국대 교무부총장)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최상기 인제군수, 주호영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올해 만해축전 평화대상은 태국 아속공동체 창시자 포티락 스님이 수상했다. 실천대상은 산악인 엄홍길 씨, 계명대 대구동산병원(병원장 서영성)이 받게 됐다. 문예대상은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시인 신달자 씨가 공동 수상했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포티락 스님을 대신해 상을 받은 아속공동체 켄파 선생은 "50여 년 동안 실제 삶의 현장에서 팔정도를 구현하기 위해 인생을 바쳤다"며 "삶의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만든 아속공동체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다"고 소감을 대신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산악인 엄홍길 씨는 "한용운 스님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평생 네팔과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도전의 삶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천대상 공동수상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서영성 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한 공공의료의 길을 끝까지 걷겠다"고 밝혔다.

만해축전 명예대회장인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만해스님은 나라를 잃은 우리민족에게 강인한 불굴의 정신을 일깨워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자유와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주셨다"며 "오랜 세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의 만해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 만해축전'은 만해대상 시상식을 중심으로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 1879~1944년) 스님의 사상과 문학 혼을 기리기 위한 행사들로 이뤄져 있다. 동국대, 강원도, 인제군,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후원하고 만해축전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축전서는 '생명과 공존'을 주제로 학술세미나, 서예대전, 청소년백일장 문화예술 및 경연대회 등이 8월 14일까지 펼쳐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8월 13일 국회대로서

미통당서 민주당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여야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왜곡적인 시각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8월 13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오체투지에 나섰다. 오체투지에는 사노위 위원장 혜찬 스님과 부위원장 지몽 스님 등 위원 스님들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이주 · 비정규 노동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사노위는 서울 국회대로 미래통합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오체투지로 순례하며, 정치권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멈추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을 향한 국민 여론은 상당수 찬성입장에 가깝다. 올해 인권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찬성 입장 87.7%로 집계됐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8월 13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미래통합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사까지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이에 사노위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이제는 각 정당들이 일부 개신교계 눈치보기를 멈추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비와 사랑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당에 대해 즉각 당론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남북관계 여론형성 불교계가 주도해야"

정영철 교수, 민추본 토론회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 대화 · 협상의 복구이며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여론형성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된 근본적인 요인은 양측 정부간 합의에 대한 실행 미비라는 점에서, 정부의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8월 13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가 개최한 '남북관계 위기극복을 위한 정세토론회'에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불교계 역할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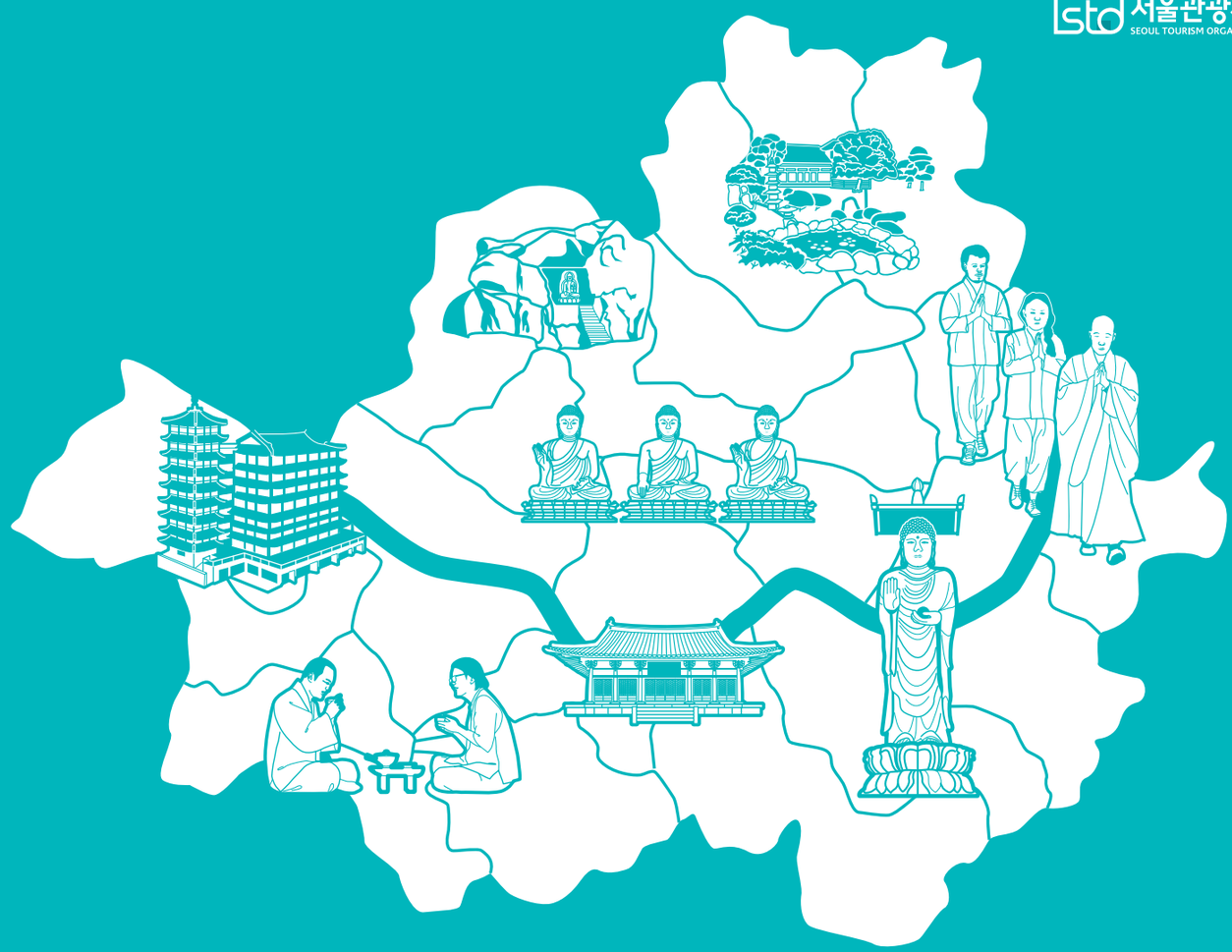
강 교수에 따르면 하노이 회담 후 교착상황은 북한에게 좌절과 실망, 나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한 계기가 됐으며, 우리 정부 역시 중재자나 촉진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남북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행동도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좌절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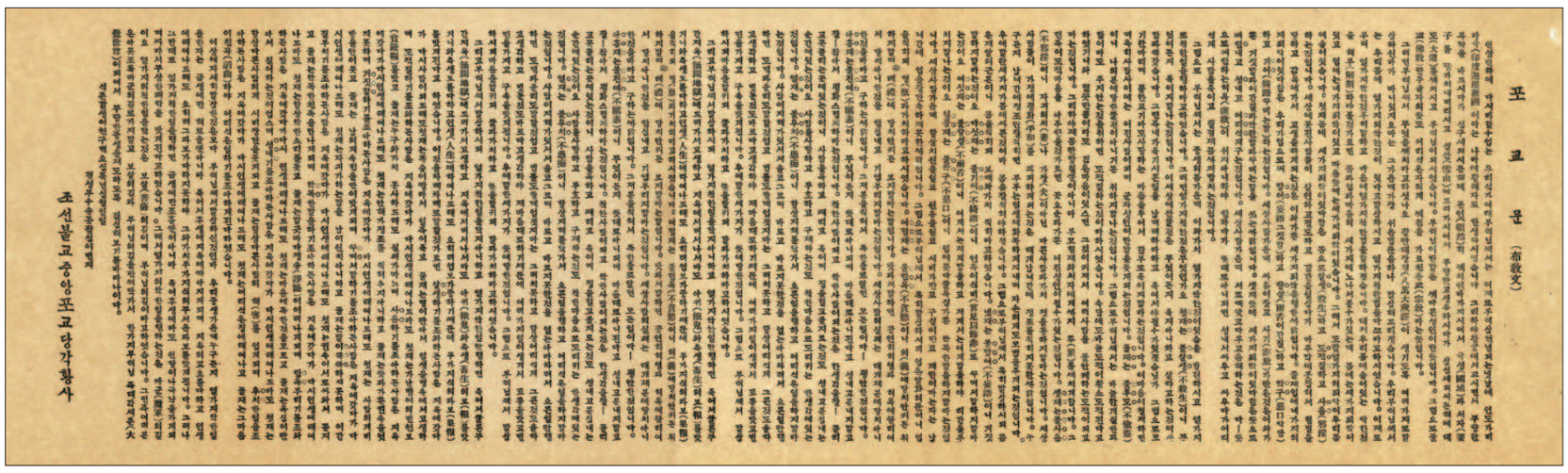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남북문제의 큰 걸림돌은 북미관계에 종속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남북관계의 교착은 물론, 정부의 자율적인 대북정책 실행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실제 한미워킹그룹에 의해 대북지원과 협력 활동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외적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남북이 독자적으로 모든 합의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강 교수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교계 등 시민단체들이 직접 북한과 접촉하거나 교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의제 형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형성과 압박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교수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에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인도적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대북교류 · 협력의 주체인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인식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I·SEOUL·U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2020 SEOUL SHOPPING FESTA × 템플스테이 TEMPLESTAY
서울쇼핑페스타
템플스테이
2020.9.1 – 9.13 (13일간)
서울 사찰에 한하여
템플스테이 참가비 30% 할인
예약 방법 www.templestay.com에서 예약 가능. 운영사찰 및 참가비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포 교 문 (布敎文)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포교사 황성

1929년 포교문 사진.

일제강점기 포교권선문, 90여년 만에 빛 보다

조계종 포교원 1929년 포교문 및 1932년 봉축 홍포문 공개

200만매 배포 중 극소수 남아
일반시민 대한 포교권선 의미
종단 설립 이전 활동 가치지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전법포교의 필요성을 역설한 '포교문' 과 193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를 알리는 '봉축홍포문' 이 공개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8월 10일 1929년 중앙교무원(각황사) '포교문' 과 1932년 '봉축홍포문' 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포교문과 봉축 홍포문은 당시 인쇄하여 배포한 것으로 국민대 문화재보존과학연구실에서 확인한 원본이다. 포교원은 법응 스님을 통해 '조선불교 중앙교무원(각황사) 포교문' 과 1932년 '조선불교 중앙교무원 봉축 홍포문' 을 확보해 이날 공개하게 됐다.

포교문은 1929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각황사 부처님 사리배관 공개와 동시에 200만매를 시내 요처에 배부키로 했다고 동아일보 기사로도 실린 바 있다. 포교문은 2013년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소장한 포교문이 교계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이번 포교문의 보존상태가 더 뛰어나다.

봉축홍포문은 1932년 5월 13일 동아일보 기사에서 관등대회를 크게 열었음을 전하며 이 때 홍포문 배포를 시사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불광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불교전법 역사를 정리하며 가장 아쉬운 것이 시대별 전법의 형식과 내용이 전해지는 것이 없었다는 점이었다"며 "조계종이 설립되지 않았던 1920년대 포교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교단 전법포교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스님은 "그 내용을 보면 10선계를 지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있어, 현대에도 전법과 포교에 근본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된다"며 "포교원에서 5대 수행법을 정리하며 계율 수행법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5계도 공동체 기여와 사회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지해야한다. 환경, 평화, 갈등해소 등에 5계 실천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교문의 내용은 부처님일대기와 십악과 십선에 대해 당시 민중들이 알기 쉽게 작성되었으며, 봉축홍포문 역시 간결하고 쉽게 왜 불교를 믿어야 하는지 알리고 있다.

포교원 측은 보존처리를 거쳐 조계종 중앙기록관에 영구 보관할 예정으로 올해 추진하는 불교 성전, 불교의례문 등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교문 어떤 내용이?

'부처님이라는 말은 깨달은 성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란 두 글자의 뜻도 어리석은 자에게 깨침을 가르친 종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열 가지 착한 일을 닦지 아니하고 열 가지 악한 일만 행하면, 죽어서 물론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지옥에서 벗어나서라도 아귀와 축생의 보를 받거니와 축생보를 다하고 인생에 태어나더라도 오히려 업보가 중하기 때문에 두 가지 식의 과보를(이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열가지 착한 일을 행하면 금생에만 좋을 뿐이 아니라 무상한 복락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의 착한 일을 닦는 것은 보살의 길이며 부처님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언택트로 대불련 청년불자 모여라!

대불련 8월 6~8일 온라인 '영 부디스트캠프' 화제

코로나로 비대면 기기 활용
법회 · 명상 · 상담 등 진행



Zoom을 활용해 온라인 상담으로 진행하는 모습(사진 오른쪽)과 이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대불련 학생들(사진 왼쪽).

"단국대 다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반대로 코로나 라는 재난도 저희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 봅니다. 온라인으로 요가명상을 하는 등 좋은 경험을 해준 스님들과 대불련에 감사를 표합니다."

8월 7일 충무로의 한 모임공간에 보라색 옷을 입은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각종 카메라와 모니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한 이들은 온라인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도법사 윤성 스님의 명상지도가 시작되자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동참한 학생들은 저마다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윤정은, 이하 대불련)가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한 '영부디스트캠프' 는 대학생 불자들의 온라인 소통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대불련은 당초 부산에서 영부디스트캠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비대면 캠프를 진행하게 됐다.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한 학생은 8명이지만 온라인을 통해 3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나의 마음속으로, inside me!' 를 주제로 열린 만큼 온라인 프로그램 대부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으로 구성됐다. 첫째날 전혜정 대불련 포교간사의 연꽃잎 만들기 강의와 윤성희 요가강사의 요가강의가 진행됐고, 두 번째날에는 운성 스님의 명상버스킹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세광 스님의 고민속으로란 즉문즉답을 통해 대학생 불자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님과 함께 스스럼 없이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이색적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종욱 씨는 "예민한 친구를 대할 때 그 친구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친구가 더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조력을 할 수 있을까요?"란 질문을 보냈고, 세광 스님은 "먼저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을 조용히 먼저 전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은 대불련 중앙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는 법우들을 온라인으로나마 만나서 반가웠다. 전국의 지부들과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보다 원할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비대면 소통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도선사 영구 위패탑 '소울 포레스트' 완공법회

8개 유리탑에 8,500기 봉안

서울 우이동 삼각산 도선사(주지 도서 스님)는 8월 5일 경내에 영구 위패탑 8500기를 조성한 '소울 포레스트(소울림)' 완공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청담 대종사 사리탑 아래에 위치한 '소울 포레스트' 는 유리탑 형태의 8개 동으로 건립됐으며, 아미타불을 주불로, 각 위패탑 안에 8대 보살(문수, 보현, 관세음, 대세지, 금강장, 제장애, 미륵, 지장)을 모신 것이 특징이다.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본래 '소울' 이란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뜻하는 말이다. 후손이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최고의 효도는 조상님과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불사에는 설계디자인을 담당한 ㈜한국건축과 ㈜엘드림 종합건설 ㈜윤성 등 3개 업체와 '페이퍼 커팅' 기법으로 유명한 신호윤 작가가 참여했다.

김주일 기자


도선사 서울 포레스트 전경.

〈김창배 달마도첩〉 출간

8월 10~17일 기념전


담원 김창배 달마도첩 / 글 · 그림 김창배 / 솔과학 펴냄 / 15만원

선묵화가 김창배가 〈담원 김창배 달마도첩, 이하 달마도첩〉을 발간했다. 9년간의 화업수행(畵業修行)을 통해 완성한 〈달마도첩〉은 김 화백의 작품 800여 점을 수록한 대형화첩이다.

〈달마도첩〉에는 김 화백의 달마도 최신작 378점과 작가의 스승 금추 이남호의 달마도 25점,일본 중국 등 각국 박물관에 소장된 세상의 귀한 달마 40여 점 등이 실렸다. 한편 〈달마도첩〉 출간을 기념하여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수덕사 선 미술관에서 '담원 김창배 전' 이 열렸다. 전시에는 달마도를 비롯한 김 화백의 작품 130여 점이 선보였다.

박재완 기자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 졸업자에게는 내규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전수생으로 지정합니다.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8월 20일 (목) ~ 8월 28일(금)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마일운 스님	월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특별반	각종행사 불교의식	조현성 스님	토	30명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붓다볼 명상에 담긴 자녀와의 사랑

홍법사, 8월 9일 자녀와 함께 하는 힐링테라피 개최

부산 9가족 20여 명 참여
편안한 자세로 휴식 취해
'마음으로 가족 소통 기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홍법사가 8월 9일 한나래평생교육원 배움채 3층에서 진행한 힐링테라피서 한 모녀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다.

붓다볼(싱잉볼) 명상에 참여한 가족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여 화제다. 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을 제공한 것이 아닌데도 서로를 위한 이해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붓다볼 명상의 효과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8월 9일 한나래평생교육원 배움채 3층에서 '마음의 연꽃향기 붓다볼 힐링테라피-엄마손은 약손(이하 붓다볼 힐링테라피)' 을 진행했다.

붓다볼은 일명 싱잉볼로 알려진 법구로 현재 홍법사에서는 '부처님 시대부터 함께한 치유와 명상의 법구' 라는 의미를 담아 붓다볼(Buddha Bowl)로 부르고 있다.

붓다볼 힐링테라피는 8월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힐링테라피는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9가족, 20여 명이 동참했다.

힐링테라피에 동참한 가족들은 명상을 위한 특별한 자세(가부좌)를 요구받지 않았다. 편안한 자세로 다리가 불편하면 뻗어도 되고 눕고 싶은 사람은 누워서도 참여가 가능했다.

김경숙 붓다볼 테라피스트는 "애쓰지 않아도 혹은 명상을 염두에 두고 알아차림을 하지 않아도 소리는 자연스럽게 들린다. 명상에 접근할 때 긴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명상을 망친다. 긴장을 풀고 편안히 소리에 마음을 맡기도록 당부했다"며 "붓다볼 진동의 파장이 몸 속을 이완시킨다.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김경숙 붓다볼 테라피스트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소리에 따라 변하는 감각을 자세히 관찰하며 파동에 몸을 맡겼다.

부모들은 이어 자녀들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눈을 깊이 바라보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도록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부모들은 붓다볼을 손바닥에 올리고 자녀의 미간 근처에서 소리를 울리고 파동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경숙 테라피스트는 부모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붓다볼을 울리고 그 소리에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자녀들도 붓다볼을 직접 치며 소리를 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누운 엄마들의 등과 가슴에 파동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미세한 울림을 따라 행복을 기원했다.

김경숙 테라피스트는 "부모들은 몸의 모든 근육을 아이들이 씻겨주듯 한 느낌을 받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대해 서로가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과 아이들도 편안한 명상법이라 쉽게 접근 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정윤 씨(48)는 "손을 잡고 아이의 눈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심리적 거리가 좀 멀어진 느낌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더 가까워지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응원하게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은경(48) 씨는 "명상이라 무거운 분위기일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매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서로의 눈을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사랑한다는 마음을 눈으로 전하며 명상을 하다보니 아이도 마음을 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주 집에서도 해줘야겠다"고 밝혔다.

양혜원(평산초 5) 학생은 "처음에 붓다볼의 소리를 들으며 '옴' 을 소리내어 봤는데 마음이 차분해지고 너무 편안해져서 나도 깜짝 놀랐다"며 "엄마와 눈마주보기를 하였는데 기분이 묘했다. 엄마가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도 붓다볼을 치며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는데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음의 연꽃향기 붓다볼 힐링테라피는 8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된다. 8월 16일에는 사운드 힐링테라피가 진행 됐으며 8월 23일에는 심신 이완 테라피, 8월 30일에는 커플과 도반, 부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051)508-0333

광주불교계, 시민 소통 카페 잇따라 개설

관음사 '목어' 카페에 이어
원효사 '첫새벽' 카페 눈길



광주 원효사는 8월 1일 '첫새벽' 카페를 개설했다. 개소식서 대중들의 표정이 밝아 보인다.

불교신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불교계가 잇따라 사찰 카페를 개설하고, 일반인들과의 만남 장소를 선보이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청)는 8월 1일 사찰 일주문 옆에 '첫새벽' 카페를 개소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 원효사의 카페는 이미 사찰 내에서 운영 중이나, 이날 개원한 카페는 무등산 탐방객들의 이동이 많은 일주문 근처에 새로 개설해 신도 포교와 사찰수익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첫새벽 카페는 무등산 조망이 한눈에 보이는 한옥 형태의 80여 평 공간을 내부 장식으로 꾸미고 커피를 비롯한 전통차, 음료 등을 판매한다. 특히 불교용품 판매 등으로 부가적인 수익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해청 스님은 "무등산과 사찰을 찾는 탐방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이번에 사찰입구에 좋은 공간을 개설하게 되었다"며, "많은 분들이 힐링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광주 시내에 위치한 관음사(주지 소운)도 7월 31일 사찰 입구에 '목어 카페' 를 개설했다. 전체 30여 평의 면적에 커피와 전통차,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에는 미니 갤러리, 불교용품 등이 전시되며, 판매도 함께 이뤄진다.

소운 스님은 "인근에 찻집이 없어 사찰에서 카페를 만들게 되었다"며 "잠시라도 사찰에 일반인들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찰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계는 최근 도심에 있는 사찰 대부분이 카페나 불교용품 판매를 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무각사, 선덕사, 원각사 등 이미 운영을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사찰들이 있어 향후 카페개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디야나 선원, 100일 명상 챌린저 '도전!'

8월 9일 입재… 11월 16일까지
"명상이 삶의 일부 되길" 발원


부산 해운대 보디야나 선원은 8월 9일 선원 법당에서 제1회 100일 명상 입재식을 개최했다.

'100일 명상 도전' 이 시작됐다. 부산 해운대 보디야나 선원(선원장 혜안)은 8월 9일 선원 법당에서 제1회 100일 명상 입재식을 개최했다. '100일 명상' 은 명상이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이끌기 위해 기획됐다.

혜안 스님은 "사람들이 명상을 배우고 입문과정을 익혀도 꾸준하게 명상을 하기 힘들어 하는 거 같아 시작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완전히 습관으로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100일 명상 입재는 8월 9일이며 회향은 11월 16일이다. 회향식은 일요법회가 열리는 11월 15일에 진행된다. 동참자들은 회향일까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30분 이상 명상하며 보디야나선원서 제공한 명상수첩에 기록한다.

수행 중 의문점이 생길 경우 매일 오전 10시 선원에서 진행하는 명상과 일요법회에서 질문하고 정진을 이어 갈 수 있다. 멀리 있는 불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동참 가능하며 질문도 라이브 창을 통해 바로 할 수 있다. 아울러 회향식에서 보디야나 선원은 참가자들에게 안거증을 전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보디야나 선원 100일 명상' 은 처음으로 진행돼 의미가 있다. 유튜브로 진행된 법회 및 명상 프로그램에는 전국에서 125여명이 동참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전원 자율적으로 동참금을 보시했으며 보디야나 선원은 동참금 전액을 선원 및 수행도량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원장 혜안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에 나오는 '삼일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이고, 백년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는 말처럼 수행의 가치를 알고 정진해 명상이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051)959-010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춘천博 보고서 발간… 제작 기술 연구 수록



강원 지역 철불 관련 조사 연구 결과를 망라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강원지역에서 다수 확인되는 통일신라~고려시대 철불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강원지역 철불의 과학적 조사 ·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조사 · 연구 대상은 강원 지역에서 발견된 완형 철불 5점과 철불편 2개체이다. 3차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밀 기록, 미세형상 분석, X-선 촬영, 주조기법 조사, 거푸집의 재료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 철불의 내외부를 정밀하게 조사해 기록했다.

이를 통해 강원 지역 철불 제작기술과 특징이 확인됐다. 5점의 철불 중 석가모니불 3점은 외형틀 분할주조 방법으로, 약사불과 아미타불은 밀랍주조 방법으로 제작됐다.

보고서는 "외형틀 분할주조로 제작된 석가모니불 3점은 내부구조와 제작방법이 모두 같아,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인집단에 의해 제작된 작품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또 3D 정밀스캔으로 통해 얻어진 3차원 수치데이터를 활용해 서로 닮은꼴로만 알려져 왔던 불상들의 얼굴 유사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총 11개 기준점과 5개 치수항목 기준을 설정하고 3차원 편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불상의 얼굴은 백호부분과 얼굴 양 옆면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위치와 치수가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2mm 내외의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연구자료가 부족한 철불들의 제작시기를 연구하기 위하여 부식물을 활용한 방사선탄소연대측정을 시도했으며, 향후 관련 자료의 축적과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우리 문화재 지키는 청소년될 터"

경남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 지킴이 발대식



경남파라미타 청소년문화재 지킴이들이 '덕분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경남 파라미타 학생들이 문화재를 지키고 알아가는 지킴이가 될 것을 선서했다.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도문)는 8월1일 통도사 마산중앙포교당 정법사 불교회관 3층에서 '2020년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발대식을 봉행했다.

발대식에는 경남 파라미타 총재 도문 스님, 운영이사 송산 스님, 법진 스님을 비롯해 김재호 협회장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올해 문화재 지킴이는 과학기술고등학교 외 경남 32개 중 · 고등학교 학생들과 김해 불인사 학생회 외 8개 사찰 학생회가 동참한다. 학생 1075명이 동참해 경남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지도교사 및 대표자만 참가하도록 해 대표 학생들만 동참했으며 발대식은 △개회선원 △국민의례 △삼귀의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및 분회기 전달 △우수회원 표창장전달 △회장인사 △격려사 △축사 △발원문 △폐회선언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회원 표창은 경남기술과학고 윤도이 외 3명이 중앙총재상을 수상했으며 중앙회장상은 불인사 불교학생회 박성찬 외 3명, 경남총재상은 진불선원 진가온 외 5명, 경남회장상은 정법사 어린이회 김미주 외 4명이 수상했다.

김재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발대식이 늦게 개최되었다"며 "앞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호의식을 키워주는 행사로 채워지길 바라며 청소년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서는 주인공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파라미타 총재 도문 스님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 과정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지혜의 빛이 되어 자신의 인격 완성과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남곡당 윤명선사 39주기 추모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8월 7일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선운사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9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남곡당 윤명대선사 추모재에는 남곡 스님의 문손 한주 재곤 스님, 범여 스님, 법현 스님, 대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원로스님들과 주지 경우 스님, 종회의원 태효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내장사 주지 지태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남곡문도를 대표해 선운사 한주 재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은사스님의 가르침대로 문중이 모두 화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남곡당 윤명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은 은사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한 남곡 스님은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를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납 54세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불 논단

국내 OTT 콘텐츠 '혁신' 필요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OTT 서비스 폭발적 성장세
지상파 · 케이블TV 생존 위협

디지털 '스트리밍 기술' 바탕
2006년 아마존프라임 첫 시작
양질 콘텐츠 무제한 이용 매력

해외OTT 비해 국내업체 영세
글로벌 환경에 대한 도전 필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의 성장이 가히 폭발적이다. OTT(Over The Top)는 원래 셋톱박스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 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를 말한다.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OTT 서비스 사업자다.

오랜 세월 동안 영상 시장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오던 지상파방송, 케이블TV와 같은 전통 미디어는 그 기세에 눌려 생존의 위협으로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의 시청 트렌드가 OTT로 수렴하면서 전통 미디어의 영상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통 미디어는 OTT와 같은 신규 디지털 미디어와 시청자를 나누어 가지며 시장에서 공존하겠다는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미디어 생태계는 우후죽순 출현하는 신생 OTT와 같은 각종 디지털 종들의 각축장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처음으로 시작한 OTT 서비스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스트리밍 기술'을 배경으로 한다. 스트리밍(streaming)이란 '흐른다'는 뜻으로 인터넷에서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콘텐츠 전송방식이다. 과거 CD나 MP3 파일을 모으던 것과는 달리, 콘텐츠를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속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해준다. 음원 서비스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스트리밍 서비스이지만 최근에는 영상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 스트리밍 소비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트리밍 기술을 토대로 출현한 OTT 서비스는 영상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유통방식에 일대 변혁을 일으키며 급속히 성장해가고 있다. 해외 디지털 미디어 시장조사 업체 Digital TV Consultancy는 2024년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 OTT 점유율이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OTT 시장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훌루, HBO 맥스, 애플TV+, 퀴비와 같은 미국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이 중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1억 9천만 명(2020년 6월 말 기준)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 프라임이 1억 5천만 명(2020년 1월 기준)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고, 기타 경쟁 업체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아서 향후 OTT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OTT 서비스의 매력은 양질의 콘텐츠를 저렴한 월정액에, TV수상기,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사회는 국경을 초월한 초연결 사회로서 글로벌 시장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해외 OTT 업체가 이미 한국에서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반면,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의 고민은 깊기만 하다. 일부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더 많은 광고를 허용하고,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지원이 궁극적으로 아날로그 미디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것보다는 국내 사업자들의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도전과 혁신의 마인드가 우선돼야 한다. 콘텐츠 산업은 속성상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이생엔 공양올리고 갑니다

두 달 전 인연이 된 원만행 보살님은 췌장암 말기와 백내장 · 녹내장 말기증세로 시력까지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의식마저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 위급한 상황이다. 두 달의 짧은 시간동안 보살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처음 보살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자한 외모와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진실된 신심과 겸손한 자세에 감동을 받았다. 따님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입구에서 1미터 간격의 책상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나누었다. 첫 마디가 "스님 저는 절에서 30년 공양주를 살았습니다"였다. 부처님과 스님들을 시봉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뿌듯하고 행복하다 전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보살님은 자신의 고단한 삶의 인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절을 찾아 공양주를 자청하고 절 살림을 맡게 되었다.

일이 많아 몸은 힘들지만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올리는 마음으로 살았다. 500등이 넘는 연꽃을 혼자서 다 만들어 법당에 달면 스님들께서 "보살님은 이렇게 연꽃을 잘 만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 다음 생엔 반드시 연화장 세계에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덕담을 주시기도 하였다.

공양 때는 스님들의 식성에 따라 국과 찌개를 끓였다. '영양분도 없는 것을 드시고 어떻게 수행을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스님들마다의 식성과 좋아하는 요리를 눈여겨보고 기억하였다. 어떤 스님은 미역국을 좋아하시고 어떤 스님은 국보다는 찌개를 좋아하셨다. 밥도 흰밥과 찰밥을 나누어서 준비하였다. 이런 모습에 주변에서는 별스럽다고, 왜 고생을 자처하냐고 하였지만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다는 일념으로 하였다. 조금 더 마음 쓰면 스님들이 훨씬 공양을 잘 드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잘 드시는 모습만 봐도 감사했고 흐뭇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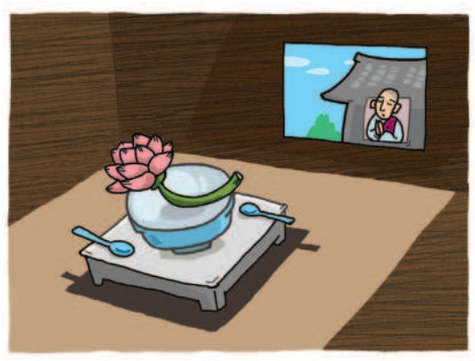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렇듯 한 생을 공양 올리며 살았고 이제 부처님 곁으로 가는 일만 남았다는 보살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전 보살님의 딸로부터 전화가 왔다. "스님 엄마가 많이 위독한데요. 눈은 안 보이지만 들을 수는 있어요. 이 전화를 바꿔 드릴테니까 통화 좀 해주세요." 흐느끼는 딸의 음성이 들렸다.

"원만행 보살님"하고 부르니 "스님, 왜 이렇게 부처님한테 가는 게 힘들까요. 저를 그만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는데"라고 천천히 읊조리듯 말하는 보살님의 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무어라 말을 해야 할 지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했다.

다시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보살님의 모습은 마른 나뭇잎처럼 바짝 마르고 숨은 목에 차 당신의 시간이 얼마 없음을 표현하는 듯 보였다. "스님입니다. 목소리가 들리세요?"라고 묻자 고개를 가늘게 끄떡인다. 귀 가까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니 함께 입을 움직이는 모습에 목이 메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30년을 부처님 도량에서 한 생 공양올린 불자 원만행 보살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락정토 아미타부처님의 나라에 왕생할 수 있도록 가피하소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社 說

수해복구에 불자 힘 모으자

8월 7~8일 구례와 하동, 합천 등에는 최대 531㎜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구례읍이 물에 잠기는 등 수해가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용인과 이천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에서 수십년 만의 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사찰과 마을이 수해를 입었다.

그 이후 수주동안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애석하게도 폭염이 내리쬐 수해복구에 참여한 이들이 빗물 대신 구슬땀을 뚝뚝 흘렸다. 하지만 이들은 옷을 흠뻑 적신 채 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아픔에 사찰 스님들도 나섰다. 구례 화엄사와 하동 쌍계사 등 지역 스님들은 장화와 고무장갑을 끼고 흙투성이가 된 가재도구를 씻고, 집기를 나르며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의 마음을 어루 만졌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구례읍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자원봉사자들의 든든한 힘이 되도록 했다. 전국 각지의 스님들과 불자대중들이 성금을 내고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피해복구까지는 아직 남은 일이 많다. 수해를 입은 다음에는 빠른 복구가 필수라고 한다. 토사들이 굳기 전에 물로 씻어내는 것이 굳은 다음 닦아내는 것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더욱 많은 이들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다.

피해를 입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금을 비롯, 성금 등을 받더라도 재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조금 더 십시일반 나누는 불자들의 자비행이 필요하다.

천재지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는 마음의 치유가 이어져야 한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되살려 수해복구와 지원에 나서자.

감동 '포교 · 교육' 유튜브 기대

최근 불교 각계에서 유튜브 채널 개설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른바 불교 유튜브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도 종단 행정과 교육, 포교 등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팀 '고사리 유랑단'을 구성해 예능형 포교 채널을 운영하고, 출가자 감소 극복을 위한 출가 모집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 종단의 다양한 종무행정과 운영방침, 행사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도 곧 출범할 예정이다.

관건은 유튜브 채널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정보전달, 말초적인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가 얼마만큼 대중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느냐이다. 당장에 유튜브를 켜보면 이러한 콘텐츠들은 너무나 많다. 이러한 콘텐츠들끼리의 경쟁으로 인하여 초기의 기획과 달리 눈살 찌뿌려질 만큼 자극적인 콘텐츠로 변질된 유튜브 채널도 많다. 또 기업이 주도하는 채널 중에는 무의미한 단순정보만을 담고 있는 채널도 많다.

청년들에게는 즐거움과 함께 감동을, 그리고 불교에 대한 호기심을, 장년들에게는 삶의 보람과 활력, 그리고 불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수많은 정보성 유튜브 콘텐츠, 예능형 유튜브 콘텐츠 속에서 차별성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연구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를 보고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불교를 알아가고, 불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야 한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유튜브 채널 운영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다른 곳에서 하기에, 많은 인기가 있으니 따라서 하는 채널 운영은 의미가 없다.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불교가 지닌 진실한 감동을 전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선보이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세계붓다평화봉사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불기 2564년은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비드19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9월 30일(수)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 · 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심오 · 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추천된 대상 시상자들에게 서류 접수비 및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 협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2~7/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2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 / 현천스님	선요가
3	칸니 명상 : 아나빠나삿띠와 위빳사나수행의 입문서이자 안내서	수망갈라 / 차은숙	운주사
4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5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법구경 이야기(1) 법구경 주석서	무념 응진	옛길
7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8	중음에서 벗어나는 법	왕윈/차혜정	불광출판사
9	반야심경의 바른 이해	김진태	민족사
10	생명으로 돌아가기	조애나 메이시	모과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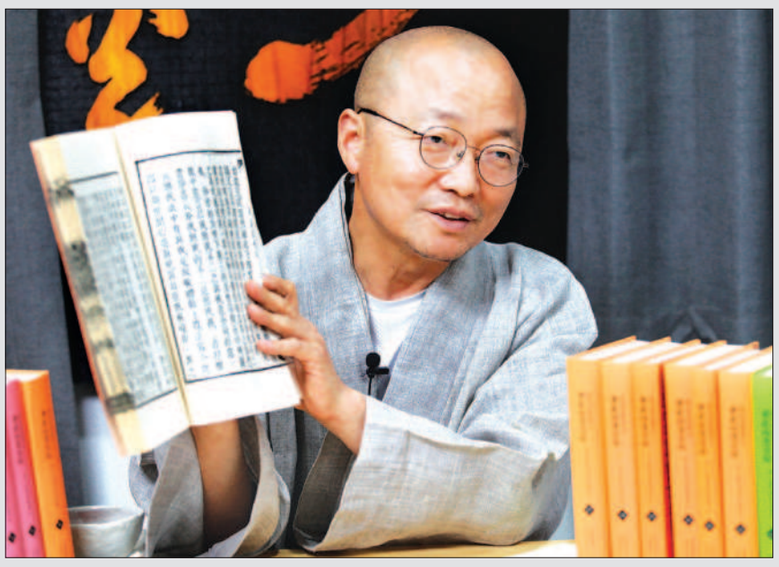
책세상

〈화엄경〉 진면목 〈화엄경청량소〉 완역 완간



화엄경청량소 청량징관 지음 / 반산 스님 역주 / 담앤북스 펴냄 / 각권 3만원(34권 세트가 1백2만원)

1998년 번역 시작 2017년 완역 총 34권 완간
소와 초 번역 반산 스님의 견해 덧붙여 완성
"화엄경 최고의 경전이지만 공부하기 어려워,
쉽게 강의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하고 싶어 시작"



반산 스님은… 통도사로 출가하여 고원 명정(古園 明正)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198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천은사, 불국사, 대승사, 극락암 선원 등에서 여섯 번의 하안거를 성만했다. 중앙승가대학, 조계종립 은해사승가대학원 1기 졸업(1999), 쌍계사, 통도사, 해인사 강사와 봉선사 능엄학림 학감,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를 역임했다. 2002년 봉선사 조실 월운 강백에게 전강했으며 쌍계사승가대학 강주를 역임했다. 현재 경남 양산 원각사 주지를 맡고 있다. 번역 및 편저서로 〈화엄경청량소〉 제1권 세주묘엄품, 〈화엄경청량소〉 제7, 8, 9권 십지품,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재미있는 화엄경〉, 〈재미있는 법화경〉이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화엄경〉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화엄경청량소〉가 우리말로 완역 출간됐다. 역주자는 반산 스님(경남 양산 원각사 주지)이다.

반산 스님은 1998년 강원교재용으로 번역을 시작해 2017년 번역을 모두 마쳤다. 〈화엄경청량소〉 7처 9회 39품의 모든 번역을 마치고, 2018년 11월부터 3년 동안 제1회 적멸도량법회, 제2회 보광명전법회, 제3회 수미산정법회, 제4회 야마천궁법회, 제5회 도솔천궁법회, 제6회 타화자재천궁법회, 제7회 재회 보광명전법회, 제8회 삼회보광명전법회, 제9회 서다원림법회를 진행하며 총 4차에 걸쳐 34권을 완간했다. 한글로 완역해 완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엄경청량소〉는 〈화엄경〉을 중국의 청량 국사가 자세한 해석과 주석으로 해설한 것이다.

이번 반산 스님의 〈화엄경청량소〉는 봉은사 소장 목판 80권 〈화엄경소초회본〉을 원본으로 삼았다. 반산 스님은 직접 원문을 입력하고 소(疏)와 초(鈔)를 번역했으며 스님의 견해를 덧붙였다. 직역을 원칙으로 하여 원본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존했다.

청량 국사는 〈화엄경〉을 주석하면서 항상 네 가지 문으로 나누었다. 1. 내의(來意), 2 석명(釋名), 3. 종취(宗趣), 4. 석문(釋文)이다. 여기에 다시 십문(十門)으로 나누어 해설했다.

그 원칙은 정종분이 시작되는 '여래현상품 제2'의 첫 부분에 밝히고 있다. 본 청량소 번역의 근본이 되는 〈80권 화엄경〉은 우전국의 대표적인 역경삼장인 실차난타(651~710)에 의해 번역됐는데, 삼장은 증성 1년(695)에 중국 낙양에 범본을 모시고 대변공사(大徧空寺)에서 측천무후가 친림한 가운데 의정, 보리 유지와 함께 〈화엄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여 성력 2년(699) 복례, 법장의 조력으로 80권의 번역을 마쳤다. 이러한 무후의 국력을 동원한 역경사업은 중국 사상계의 큰 흐름이 되었고, 그런 까닭에 예로부터 뛰어난 주석가들이 다투어 주소를 저술한 바 있다.

봉은사 소장 목판본은 원래 조선 숙종 15년(1689)에 임자도에서 발견됐던, 성총 스님이 판각 불사를 통하여 유통시킨 징광사(澄光寺) 판본이 그 원본이다. 그러나 1770년에 화재로 소실됐고, 영조 50년(1774)에 설파 상언(雪坡 尙彦)이 판각한 영각사 판본이 유통됐는데 이 판본도 역시 1950년의 전란으로 없어졌다.

하지만 그 경본만은 남아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철종 때(1855~1856)에 영기(永奇) 스님이 각인(刻印)한 봉은사 판이 현존하게 됐다. 봉은사 판은 영각사 판을 복각(復刻)한 것으로 중간에 45장을 보충했다. 이것이 그동안 강원 대교과(大敎科)의 교재로 쓰여 왔던 유일한 현존 판이다.

반산 스님이 〈화엄경청량소〉 대작불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화엄경〉이 불교 최고의 경전이지만 현실적으로 〈화엄경〉을 끝까지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른 공부를 다 제쳐두고 〈화엄경〉만 공부한다고 해도 끝까지 마치려면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4년 학기인 강원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또한 〈한글대장경〉에 〈화엄경〉의 진면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화엄경청량소〉가 없으며, 중요한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고려대장경〉에 합본이 없어 빠져있다. 반산 스님은 어렵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큰 불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산 스님은 "누군가는 어렵게 공부해서 쉽게 강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래 부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은데 그 깊이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자신의 공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매해 공부하면서 깊이가 달라진다면 또 그 내용을 담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량 국사가 〈화엄경청량소초〉의 소를 내고 초에서 보충을 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는 청량 국사의 의지에서 소초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의지와 마음을 이어가고 싶었다"고 불사의 동기를 밝혔다. 아울러 스님은 앞으로 〈화엄경반산소〉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이렇듯 〈화엄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소초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청량 징관 스님의 소초가 유명한 이유는 정확하고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의 약칭이다. 경전의 성립사적 측면에서 보면 불기 500~600년 사이 중관(中觀) · 유가(瑜伽) 양 파가 형성된 이후 두 학파를 종합 통일한 일승불교의 진행과정 속에서 성립된 대승불교의 최고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청량 징관(738~839) 스님은 중국의 성당(盛唐) 시절 화엄종을 발전시킨 대종장으로 본래 회계(會稽) 사람이다. 성은 하후(夏候)요 자는 대휴(大休)이며 청량은 덕종이 내린 법호이다.

7세에 출가하여 우두 혜충(牛頭 惠忠, 683~769), 경산 도흠(徑山 道欽, 714~792)에 의지해 선을 깨닫고 현수 법장(賢首 法藏, 643~712)으로부터 화엄의 법을 이었다. 770년경 오대산(五臺山) 대화엄사(大華嚴寺)에서 〈화엄경소〉 저술을 결심하고 다시 세간의 학문을 배워 육예(六藝), 도사(圖史)와 구류이학(九流異學), 축경범자(竺經梵字), 사위오명(四圍五明)에 이르기까지 널리 열람하고 건중(建中) 4년(783)에 집필에 앞서 서응(瑞應)을 구했다.

어느 날 꿈에 부처님 얼굴이 산마루에 비치어 그 광명이 천지에 온화했다. 스님이 손으로 받들어 입으로 삼켰는데 이로부터 한 번 붓을 내림에 막힘없이 4년 만에 〈화엄경소〉 60권을 완성했다고 한다. 이어서 후학을 위하여 〈수소연의초(隨疏演義鈔)〉 40권을 지었다고 한다.(소초연기 · 疏鈔緣起 참조)

화엄경청량소(華嚴經淸涼疏)

전, 쌍계사 강주 서봉 반산 스님의 역주로 엮은 『화엄경청량소』 전 34권 완간!!



이 시대의 화엄행자 반산 스님이 서울 봉은사 소장 목판본에 새겨진
청량징관 스님의 화엄경 주석서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를
지난 20여 년에 걸쳐 한글 번역을 모두 마치고,
2018년 11월부터 3년 동안 총4차 출판의 대장정을 이어
우리나라 최초로 34권 전권을 완간하였다.

※ 『화엄경청량소』 전34권 완간회원과 세트 구매를 하시는 분에게는 부록(찾아보기)을 드립니다.

| 청량징관 저, 반산 스님 역주 | 담앤북스
| 신국판(160 X 230) 양장제본 | 정가_ 각권 30,000원 (전 34권 세트가_ 1,020,000원)

※ 청량국사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의 『화엄경』 주석서로 화엄경의 진수를 보여 준다.

Tel 02-765-1251 전자우편 damnbooks@hanmail.net 담앤북스

코로나19 사태 속 각양각색 백중기도

日사찰들, 다양한 시도 '눈길'
감염우려에 가정법회 취소도
전통의례시 예방법지침 공개
마스크 착용·차 대접도 생략
원격으로 천도재하는 사찰도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일본. 최근엔 일일 확진자 수가 1천600여명을 넘는 등 '깜깜이 감염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 최대의 명절이자 불교행사인 백중이 코앞으로 다가와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편 이에 대비한 일본 불교계의 다양한 대책도 속속 등장 중이다. 지난 8월 4일, 일본의 '교토신문' '엑사이트 재팬' '이자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코로나 19에 대비한 일본의 백중 풍경을 전달했다.

음력에 맞추어 법회를 봉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양력에 맞추어 봉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음력 7월 15일에 봉행하던 백중은 현대 일본에서 양력에 부합하는 8월 15일에 봉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각 사찰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합동으로 천도재를 지내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각 가정에 불단이 모셔져 있는 관계로 스님이 신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불경을 독송하는 '다나교(棚經)'이라는 풍습이 있다. 또 사찰에서는 무주고혼들을 위하여 '세가키(施餓鬼)'라는 의례를 봉행한다. 특히 다나교는 사찰이 재적 신도를 방문하고 사찰과 신도 간의 관계를 재확인 하는 중요한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의례들이 모두 난관에 봉착했다. 교토시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예년 같으면 큰댁에 온 가족이 모여 스님을 청해 다나교를 봉행했지만 올해는 어찌해야하나 고민"이라며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스님께 현관에서 알코올 소독 등을 요구하는 것은 실례일지 모르겠다"며 가정 방역대책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 불교계는 각 종단과 사찰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예비지침을 전파, 신도 가정 등에도 공지하고 있다. 교토시내 정토종 사찰 등에서는 "평소 같으면 차가운 차와 물수건 등을 제공 받지만 올해는 정중히 거절하라"는 지침과 함께 "비말확산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방문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천도재를 중계하는 모습.
사진출처=이자뉴스

염불과 독경도 최대한 작은 소리로 진행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공지됐다.

그러나 종파를 불문하고 올해 백중기간 중 스님의 방문을 거절하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스님은 "백중기간을 맞아 귀성한 가족들이 모인 곳에 어딜 다녀온 지 알 수 없는 스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줄로 안다"며 거절의 이유가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사찰은 종래의 세가키 법요를 확대, 합동천도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보통 사찰에 가족묘를 두는 일본의 특성상 다나교 이후에 각 가정이 성묘를 하는 것에서 착안했다. 교토에 소재한 호린지(法林寺)의 주지 시가하라 마사후미 스님은 "백중의 달인 8월에 모든 조상들과 무주고혼들까지 함께 위안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합동 천도재를 진행한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온라인이나 원격화상을 통해 천도재와 가정방문을 진행하는 사찰도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온라인 법회와 천도재 등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 4월경부터 도입돼 신도들의 참여가 원활하다는 이유다.

온라인 장례와 법회를 지원하는 회사인 '라이프 앤딩 테크놀로지'는 "오는 16일, 코로나 19로 귀성이 힘든 이들 등, 여러 사안으로 곤란한 이들을 위해 종파를 불문한 합동 천도재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에겐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해당일 시간에 맞춰 접속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태국불교, 출재가 상생으로 고난 극복

스님들이 재가자에게 공양도
사찰 중심 경제난 극복 앞서

코로나19로 경제난에 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태국의 사찰들이 나섰다. 일반적으로 보시와 공양을 받는 출가승단이 재가자들에게 역으로 공양을 베푼 것이다. 지난 8월 5일 '컨버세이션' '텔레그래프 타이' 등 현지 언론들은 역(逆)공양을 하는 태국 사찰의 새로운 모습들을 특별 보도했다.

태국 불교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행과 신행활동은 출재가간에 공유하는 탁발과 보시이다. 매일 아침 발우를 들고 일렬로 선 스님들에게 재가자들이 음식과 생필품을 공양 올리는 것은 남방 불교의 흔한 이미지중 하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태국의 출가승단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주민에게 공양을 베풀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코


태국 아유타야 주 한 마을에서 스님으로부터 음식을 받기 위해 그릇을 내미는 할머니.
사진출처 = 더스탠다드

로나19는 태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태국 언론들은 인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8백만 명 이상의 태국인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무기한 휴직 등으로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역 사찰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생필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나섰다.

지난 6월부터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스님들은 전국의 스님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음식을 베풀 수 있는 방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지역 주민의 기부를 독려하는 공고를 올렸으며, 각 사찰들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선모금함을 설치해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스님들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위해 탁발에서 받은 공양물들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직접 배달하기도 했다.

태국 북부 피차이 주에 있는 왓 타 루앙(Wat Tha Luang) 사원은 주지스님 지휘 하에 매일 점심에 무료 도시락을 제공했다. 사원측은 "봉쇄기간 동안 1인당 최소 하루에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이 점심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을 서며, 모두 사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태국최초의 비구니인 담마난다(Dhammananda) 스님이 거주하는 왓 송담마칼랴니(Wat Songdhamma kalyani) 사원 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매일 주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찰측은 주민들을 위해 인스턴트라면 꾸러미와 쌀, 과자와 야채 같은 부식이 든 봉투를 하나씩 받았다.

태국 불교계의 보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쓰나미가 태국 남부를 강타했을 때, 사찰들은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처로 사용되었고, 2011년 방콕 대홍수에는 사찰이 급식소로 이용되기도 했다.

최근 태국언론에선 개인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고급 쇼핑몰을 이용하는 등 부패한 사찰과 승단이 대대적으로 노출되어 불교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불교계의 보시행을 통해 불교계와 출가승단의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日 원폭투하 평화 메시지

공식사무국, 8월 9일 발표
"핵무기의 위협 근절해야"


달라이라마가 일본 원폭투하 75주년에 맞춰 발표한 평화메시지.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투하 75주년을 맞이해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난 8월 6일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달라이라마가 서명한 공식 메시지를 공개했다.

달라이라마는 75년 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에 맞추어, '히로시마 · 나가사키 원폭 피록 75주년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약 14여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세계 2차 대전의 종전을 이끌어 냈지만 전시 원자탄 사용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일으켜 탈핵과 반전운동의 시초가 되기도 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법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2010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모임이 열려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원폭 기념공원을 방문,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근절해야 하며, 그것은 세계의 비무장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평화를 위한 인류 모두의 노력을 권고했다. 달라이라마는 "20세기는 인류가 가장 큰 발전을 이룬 시대인 동시에 핵무기의 공포를 수반한 폭력의 시대이기도 했다"며 원자폭탄이 사용되었던 전쟁시기와 이어졌던 냉전시기를 간략히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에 대해서는 "세계가 더욱 상호간에 의존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평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불교의 연기설에 근간해 희망적인 미래를 낙관했다.

달라이라마는 "대립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힘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력은 더 큰 보복과 폭력을 불러온다"고 말하며 '우리'와 '그들'이라는 분별로 서로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류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평화는 단지 기도만으로 실천될 수 없기에 행동으로 나서야한다"며 평화를 위한 실천을 주문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겔룩파 최고학위 '게쎄 하람빠' 수여식

8월 10일 라싸 조캉사원서
티베트 불교 4대 종단 하나


시험에 응시한 스님들의 마지막 토론 시험.
사진출처 = 차이나 데일리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Gelug)파의 최고 학위인 '게쎄 하람빠'. 지난 8월 10일 중국 '신화통신'은 12분의 스님들이 이 게쎄 하람빠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어로 '선지식'을 뜻하는 게쎄 학위는 티베트 불교에서 교학과 수행을 모두 갖춘 스님에게 수여되는 법계다. 이중 '하람빠(Lhalamapa)'는 불교학 박사에 해당하는 학위로,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중 하나인 겔룩파의 최고 학위다.

지난 7월 28일,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소재한 조캉사원에서 게쎄 하람빠 시험에 응시한 스님들의 마지막 토론 시험이 진행됐다.

하람빠 시험은 전통적으로 라싸의 3대 사찰인 간댄, 드레풍, 쎄라사원에서 번갈아 치러지며, 마지막 토론시험만은 조캉사원에서 이뤄진다.

현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역시 인도로 망명하기 직전 전통적인 시험을 거쳐 게쎄 하람빠를 취득한 바 있다. 역대 달라이라마 중 게쎄 하람빠 학위를 받은 이는 현 달라이라마를 포함 총 3인 뿐으로, 그 시험이 매우 엄격하고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새로 게쎄 하람빠를 취득한 12명의 스님들은 이후 선배 하람빠 스님들의 합동 토론회, 단체 안거 등의 연수를 마치고 각자의 본사에서 교수, 혹은 주요 소임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2020 탄허 대종사 역저서

신화엄경 합론
(新華嚴經 合論)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전체금장 12,424쪽.
합본23권
값1,610,000원

전 5권 전체금장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40품)
4×6배판 2도인쇄
가로쓰기
전5권 한질 값400,000원

이 책은 불교의 진수(眞髓)이며 고래 화엄종의 소의경전이다. 법화(法華)·열반(涅槃)과 함께 삼대경으로 손꼽히는 일승요의경으로써 요의경(了義經)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다.
백천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삼라만상에는 허공이 가장 으뜸이며, 일체 성현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으뜸이고 일체 경교(經敎)에서는 화엄경이 가장 으뜸이다.
범부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과정의 삼현십지와 불법의 신(信)·해(解)·행(行)·증(證)과 사법계·십법계·육상원융·십현문 등 가장 심오하고 광대무변한 법문이 이 경(經)·논(論)·소(疏)에 잘 설명되어 있다.
본 경은 80권 화엄경과 통현론 40권·청량국사 화엄소초 150권·회석 7권·현담 8권·보조국사의 원돈성불론 1권·계환선사의 화엄요해 1권과 탄허선사의 주석 등 총287여 권의 집대성이다.
이와 같이 화엄학을 집대성하여 수록하고 번역한 것은 유사이래 처음 있는 금자탑이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귀중한 법보(法寶)중의 법보로써 크게 추앙받으리라.
우주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화엄경(華嚴經)뿐이다.

대방광 불화엄경(40품)을 덧말(음)을 달아 남(男)·녀(女)·노(老)·소(少)·유(有)·무식(無識) 누구나 수 읽어볼 있 한 번쯤게 단락을 달았습니다.약3,200쪽 분량으로 640쪽 1권 총5권 한셋트로 2도인쇄 전체 금장으로 영원히 유산이 될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어려운 한문 때문에 경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4,741여자(餘字)를 원문과 동시 덧말(음)을 붙여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한번쯤 독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화엄경은 가정에서
법보로 가보로 꼭 필요합니다.
본경전을 受持하면
돈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譯經많은 他의 追從을 不許.


도덕경 (道德經)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고급양장 전2권 1.152쪽.
도덕경 고급양장 2권
140.000원


莊子南華經
(장자남화경)
4×6배판 고급양장 512쪽
탄허스님 육성 씨디포함
고급양장 1권 60.000원


주역선해 (周易禪解)
4×6배판 2도인쇄 세로쓰기
1.784쪽.
주역선해 3권
210.000원

도서출판 교림
http: www.tanheo.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4길17(경운동)
건국빌딩 건국관 202호
☎ (02)733~3334

건달바상 기원, 반인반신 '헤라클레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⑯ 건달바 도상들

몇 해 전의 겨울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머리, 곰머리, 토끼머리 모양의 털모자를 쓰고 각 짐승의 앞발 모양을 한 끈을 목 언저리에 묶은 어린아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헤라클레스 도상의 재유행이라며,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머리에 사자머리 가죽을 모자처럼 쓰고 있는 모습은 멀리는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이나 영국의 대영박물관에서 조각과 동전으로 볼 수 있으며, 가까이는 경주 석굴암의 건달바상 또는 불교회화에서 건달바를 표현한 그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와 불교에서 팔부신중의 하나로 알려진 건달바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매우 궁금하리라 생각한다.

헤라클레스(Hercules, Herakles)는 아폴로도로스(Apollodoros, 기원전 140년경에 활동한 그리스의 학자)가 저술한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와 미케네의 공주 알크메네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그리스의 영웅이자 힘과 용기의 상징이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의 질투에 의해 미케네의 왕위를 아버지가 다른 동복형제 에우류스테우스(Eurystheus)에게 빼앗기고, 에우류스테우스의 신하가 되어 그가 내린 12가지의 힘든 노역을 부여받는다. 그 첫 번째 노역이 네메아의 사자를 잡아 오라는 것이었다. 헤라클레스는 네메아 사자의 가죽이 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서 늘 들고 다니는 긴 몽둥이로 사자를 때려잡아 그 가죽을 벗겨 갑옷 대신 뒤집어쓰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그림이나 여러 조각상으로 표현된 헤라클레스는 몽둥이를 들고 사자 가죽을 어깨에 걸치거나 머리에 쓴 모습으로 특징되며, 이때 사자의 앞발을 모자의 끈처럼 묶어서 목에 고정한 모양을 미술사에서는 '헤라클레스 매듭' 이라고 부른다.

반인반신의 영웅 헤라클레스는 이미 기원전부터 많은 제왕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으며, 알렉산더대왕을 비롯한 여러 왕들은 자신들의 치세와 업적을 기록할 동전이나 조각상에 헤라클레스의 상징적인 모습을 차용해서 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알렉산더대왕 은화(기원전 336~323 경 주조)나 폰투스 왕국의 미트라테스 6세의 두상(기원 후 1세기 경 제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헤라클레스 도상의 유행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지중해를 거쳐 서아시아, 그리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에까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헤라클레스와 건달바의 만남과 전파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불교에서 건달바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자머리 가죽을 쓰고 있는 헤라클레스(사진 왼쪽)와 헤라클레스 도상을 차용한 금강역사의 모습.(사진 오르쪽) 네메아의 사자를 잡은 헤라클레스의 모습은 제왕의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활용됐고,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동아시아에도 전해졌다.

건달바(Gandharva)는 건달박(健達縛), 건달바(犍達婆), 언달바(彦達婆), 건답화(犍沓和), 헌달박(嶮達縛) 등으로 음사되며, 번역하면 심향행(尋香行), 심향(尋香), 식향(食香), 후향(齅香) 등의 뜻을 지닌다. 건달바는 인도의 신화에서 별자리를 조정하던 신으로서 불교에 차용되어 팔부중(八部衆)의 하나가 되었으며, 긴나라와 함께 제석천(帝釋天)의 음악을 담당하는 신으로서, 보산(寶山)에 기거하고 있다고 한다. 향기를 찾는다는 뜻의 건달바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취하므로 이같이 불리며, 항상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 나타나 정법을 찬탄하고 불교를 수호한다.

건달바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아마도 〈쌍윳다니까야〉 '건달바품(Gandhabbasaṁyutta)' 이다. 내용은 이렇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자들이 건달바 무리에 속하는 하늘 사람들인가? 뿌리 향기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으며, 향기로운 나무 심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으며, 향기로운 나무 속껍질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으며, 향기로운 나무 겉껍질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으며, 향기로운 새싹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으며, 향기로운 나뭇잎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으며, 향기로운 꽃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으며, 향기로운 열매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으며, 향기로운 수액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으며, 향기로운 향기에 사는 하늘 사람이 있다. 이러한 자들을 건달바 무리에 속하는 하늘 사람이라고 한다."

> 부처님을 호위하는 호법신 '건달바'
> 도상 대부분은 사자머리 가죽 둘러
> 네메아 사자 잡은 헤라클레스 근원
> 알렉산더대왕 동방 원정으로 전래

그리고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제1권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 건달바왕조에는 건달바의 공덕과 중생을 위한 업적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다시 또 한량없는 건달바왕이 있었다. 지국건달바왕(持國乾達波王)은 제1 단바라밀로서 자재한 방편으로 일체중생을 포상하는 성일체중생해탈문을 얻었고, 수광건달바왕(樹光乾達波王)은 제2 계바라밀로서 널리 일체공덕장엄을 보고 일체공덕장엄해탈문을 얻고, 정목건달바왕(淨目乾達波王)은 제3 인욕바라밀로서 일체중생들의 근심과 걱정을 줄게 하여 출생환희장해탈문을 얻고, 화관건달바왕(華冠乾達波王)은 제4 정진바라밀로서 중생들의 삿된 견해를 끊게 하여 영단일체중생사견흑해탈문을 얻고, 희보보음건달바왕(喜步普音乾達波王)은 제5 선정바라밀로서 시원한 구름을 큰 우주에 덮어 보음택일체중생해탈문을 얻고, 락요동미목건달바왕(樂搖動美目乾達波王)은 제6 반야바라밀로서 넓고 큰 묘호신(妙好身)을 얻어 일체를 안락케하는 일체획안락해탈문을 얻고, 묘음사자당건달바왕(妙音師子幢乾達波王)은 제7 방편바라밀로서 위대한 명칭을 널리 드날려 대명칭보해탈문을 얻고, 보방보광명건달바왕(普放寶光明乾達波王)은 제8 원바라밀로서 일체를 환희스럽게 하여 환희광명청정신해탈문을 얻고, 금강수화당건달바왕(金剛樹華幢乾達波王)은 제9 력바라밀로서 널리 일체나무들을 자영(慈榮)하여 보는 자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견자환희해탈을 얻고, 보현장엄건달바왕(普現莊嚴乾達波王)은 제10 지혜바라밀로서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잘 들어가 중생들을 안락케 하여 여중생안락해탈문을 얻었다."

또한 〈경률이상(經律異相)〉에는 "…옛날 목련이 설산에 가서 여러 귀신과 용 · 야차 · 아수라 · 건달바 등을 교화하였다. 그때 한 건달바신이 있었는데 칠보로 만든 궁전에서 살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게 아주 뛰어났다. 몸의 형상도 단정하며 총명하고 특수하였지만, 사람의 몸에 개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언급한 몇몇의 경전들을 통해서 건달바가 향기를 취하며 중생을 위해서 공덕을 쌓고 사람의 몸에 개의 머리를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갑옷을 입고 사자 머리를 머리에 쓰거나 어깨에 걸치고 있다는 도상적 특징은 어느 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존하는 유물을 통해서 헤라클레스 도상이 건달바에 차용되는 과정을 추정하면 가장 먼저 기원전 4세기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헤라클레스와 자신을 동일시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원 후 제작된 아프가니스탄 핫다의 '타파 슈투르' 감실 V2에서 어깨에 사자가죽을 걸치고 금강좌를 든 채 부처님의 옆에 자리한 헤라클레스를 통해서 불교의 호법신으로 유입된 초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기원 후 3~4세기 간다라 지역의 금강역사에 헤라클레스의 이미지가 완전히 수용된 다수의 사례들이 현존하고 있다. 사자의 머리가죽을 쓴 건달바는 오늘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쿠차의 키질석굴과 투르판의 베제클릭석굴, 감숙성의 돈황석굴, 맥적산석굴 등에서 벽화와 소조상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로는 석굴암 건달바 부조를 비롯하여 경주 남산의 동서 삼층석탑, 경주 담엄사터 출토 석탑 기단부의 건달바상, 프랑스 기메뮤지엄 소장 고려 계유명(癸酉銘) 청동 건달바상, 다수의 조선 불화 등에서 무수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늘, 불교 미술의 포용력과 국제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신화의 헤라클레스가 불교의 건달바에 차용되어 동아시아의 끝 한반도에서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신기하고 놀랍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불교국가 이상향은 '복지국가'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⑯ 뉴질랜드 복지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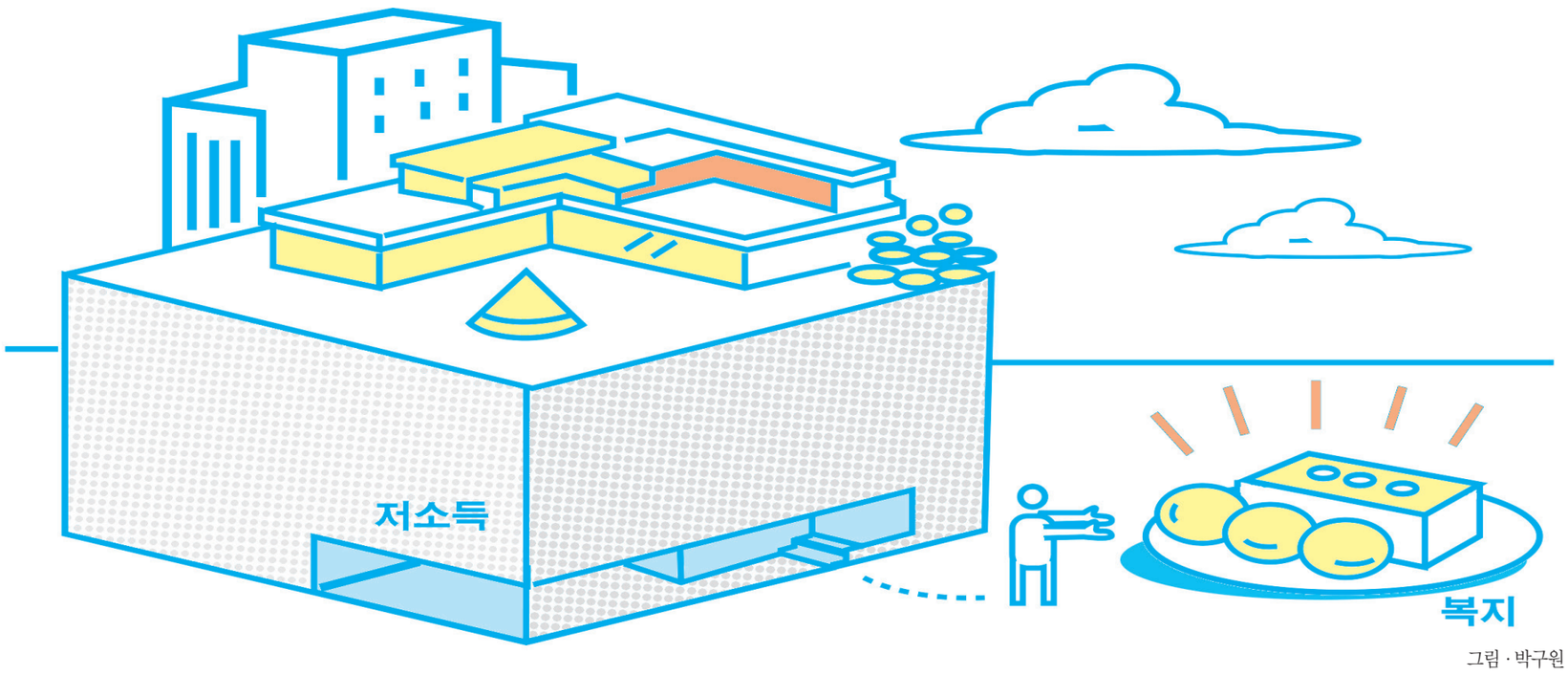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IMF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대한민국은 혁신, 개혁이라는 단어가 난무했다. 당시의 언론 기사를 보면 유독 뉴질랜드의 개혁에 대한 기사가 찬사 일색으로 등장한다. 나는 1999년 교수에게 6년에 한 번 1년간 주어지는 안식년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방문교수로 보냈다. 오직 뉴질랜드의 개혁을 연구해보기 위해서였다. 뉴질랜드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이름 높았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민간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가히 혁명적이라 부를 만 했다.

그때 뉴질랜드에는 한국 교민이 많지 않았고 이민 초기 시절이어서인지 동양인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뉴질랜드 국민이 많았다. 공원에 가도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고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가도 이런 저런 질문을 했다. 대개 질문은 뻔했다. 일본사람이냐고 묻고 아니라고 하면 중국사람이냐고 묻는다. 역시 아니라고 하면 약간 당황해하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 한국이라고 하면 '아...한국'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개 하는 질문은 여기서 뭐하느냐, 이민왔느냐, 언제 왔느냐 등등이다. 내가 뉴질랜드 개혁을 연구하러 왔다고 하니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이었다. 자기 나라가 뭘 잘하길래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왔느냐는거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은 워낙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았기에 하루에 평균 1개국에서 뉴질랜드를 방문해 개혁에 대해 조사하고 갔다고 한다. 물론 한국도 여러번 왔다 갔는데 매번 올 때마다 동일한 질문을 했다고 의아해했다. 좀 부끄러운 일이었다. 정보가 공유가 안되고 기록이 안되는 우리나라 특성이 아닌가 싶었다. 어찌되었건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 칭송하는데 막상 뉴질랜드 국민의 반응이 시원찮았다. 나는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개혁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게 아니었다.

뉴질랜드 개혁은 진보적인 노동당 정부가 추진했는데 너무나 보수당적인 정책이어서 지지자들이 이탈하였고 결국 정권을 잃게 된다. 선거 때 보수당은 정권을 잡으면 노동당의 개혁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정권을 다시 찾은 보수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동당의 개혁정책을 계속한다. 보수당의 이념에 딱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구태여 폐기할 필요가 없었던거다.

뉴질랜드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각종 복지혜택의 축소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에 걸맞는 뉴질랜드의 복지혜택은 정말 감탄할 만했다. 예를 들어 관광여행을 온 내 친구의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린아이는 병원비가 무료여서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병원에 가기전에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 치료비가 나올까 걱정했는데 쓸데 없는 기우였다. 각종 복지혜택이 축소되자 자살율이 치솟고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결국 노동당이 정권을 잃은 것이다.

개혁 전의 뉴질랜드 복지혜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감탄할 만했다. 아이가 많으면 나라에서 수당이 나오는데 액수가 제법 많았다. 원주민인 마오리 족 중에서는 아이를 셋 낳고 나라에서 나오는 수당만으로 부부가 일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어떤 뉴질랜드 사람이 불평을 했다. 우리는 '복지' 하면 게으르고 무사 안일한 저소득층이라는 도식으로 반응하기 쉽다. 그처럼 복지란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의 여론조사를 보면 '가난은 그 사람 탓이다' 라는 답변이 50%가 넘었다.

불교 경전은 이상적인 군주를 전륜성왕으로 칭한다. 전륜성왕은 어떤 왕일까? 경전은 무엇보다도 전륜성왕이라면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한다. 중아함경은 "나라 안에 빈궁한 자가 있거든 재물을 내어 구제하여 주라"고 설한다. 장아함경은 " '나라에 외로운 이와 노인이 있거든 마땅히 물건을 주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곤궁한 자가 와서 구하는 것이 있거든 부디 거절하지 말라"고 설한다. 또한 장아함경에는 부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왕과 대신의 대화에서 왕의 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모든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증일아함경은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사문과 바라문을 공양하고 외로운 노인을 모셔 기르며 빈궁한 이에게 보시하였다. 네 성문과 성 복판에 창고를 만들어 두고 금, 은, 잡보, 코끼리, 말, 수레와 의복, 침구, 의약, 향, 꽃, 음식을 쌓고, 고독한 이를 위해서는 그 아내를 주선해 주며 갖가지로 보시하되…"설한다. 몸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밥을 주고 머물 곳을 마련해서 침구까지 마련해주는 총체적인 복지국가가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모형이다.

복지 국가에 대한 이상도 현실에서 다른 반응 보여 나와남의 복지, 기준달라 공동 생존 관점 접근해야

증일아함경에 쓰여 있는 '고독한 사람에게 아내를 주선해주라' 는 구절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구절이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단순히 먹고 사는 일, 즉 생존의 기본권에 보장되는 차원을 넘어서야 행복하다고 느낀다. 인간의 외로움까지도 해결해주고 가정까지 마련해주는 삶의 질 차원의 행복을 위한 복지국가가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국가이다. 전륜성왕의 역사 속 모델로 간주되는 아쇼카 왕은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였지만 경전에서 주장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복지국가에 불과했다. 과연 오늘날 불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복지에 대한 국민정서는 아직도 부정적이다. 복지는 뭔가 가난한 사람에게 퍼주는 느낌을 준다. 우리 국민의 머리 속에 있는 복지에 대한 정서는 오랜 기간 형성된 것이라 지금도 달라졌다고 속단하기엔 이르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복지에 대한 국민여론은 호의적으로 돌아섰지만 막상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반발이 더 클지도 모른다.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이다. 막상 현실에서 닥치면 반응은 다를 때가 많다.

아무리 복지에 대한 국민정서가 부정적이라 해도 불교교리는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한다. 연기법에 의해 나와 네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나와 세상이 독립된 별개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타인의 힘든 삶을 외면할 수 없다. 오늘날 형성되어 있는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 말, 행동을 주고 받으며 형성된 것이다. 나라는 임시적 존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사람과는 다르다. 나에게는 세상의 요소가 있고 나 이외의 모든 타인의 요소가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와 토질이라는 요소도 분명 나 안에 있다.

고려시대의 한민족은 500만명이었다고 한다. 삼국시대는 몇명이었을까? 그 이전은 또 몇명이었을까? 자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소수의 사람이 한민족의 기원이다. 알고보면 우리 모두 참으로 가까운 가족이다. 온 인류가 아프리카의 루시라는 흑인 여성의 후손이라고 한다. 인류학적으로 루시라고 이름 지은 뼛조각이 모든 인간의 선조라는 주장은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비슷하게 생긴 한민족이 동류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우리가 복지로 물질을 서로 나누고 생존의 최소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은 그렇게 아깝고 화나는 일은 아니다.

복지국가가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국가의 모습이라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복지항목을 대폭 증액해야 할까?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했다. 하나는 낙수효과 이론이고 하나는 분수효과 이론다. 부자가 잘 살아야, 기업이 돈을 벌어야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산다는 주장이 낙수효과 이론이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해야 기업도 돈을 벌고 부자도 돈을 번다는 주장이 분수효과 이론이다. 어떤 주장이 맞을까? 1929년 경제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듯이 낙수효과과 분수효과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그 누구도 어떤 주장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다.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정치적 견해와 산업단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정치적 견해가 있다고 하자. 불교신도라면 복지예산 증액을 주장해야 할까?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불교신도는 복지를 위해서도 산업단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이 돈을 벌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면 세금도 많이 걷히고 복지를 위한 재원도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논리적인가? 사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이러한 생각이 분수효과를 주장하는 생각을 압도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반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즉 복지예산을 증액해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쓰게 해야 기업도 돈을 벌고 부자는 더욱 돈을 번다는 분수효과 주장이다.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불교신도라고 해도 낙수효과를 믿는 신도와 분수효과를 믿는 신도의 생각이 이처럼 극명하게 다르다. 불교 이상국가가 복지국가라는 불교교리는 복지예산을 증액할까 산업단지 예산을 증액할까라는 논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만약 수 십 년 동안 낙수효과 이론에 의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무지 복지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한 번 쯤은 분수효과 이론을 시행해보아야 한다. 진정 복지를 위한다면 말이다.

복지국가 망국론이 세상에 나온지는 수 십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은 물론이고 국민 행복도에 있어서도 복지국가가 상위 10개국을 휩쓸고 있다. 낙수효과가 맞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주장을 하겠지만 분수효과에 기반한 정책을 한번은 시행해볼 만하다. IMF, World Bank, OECD 등은 최근에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낙수효과 이론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분수효과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수행자적 삶으로 몽골 바꾸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⑯ 칭기즈칸 책사, 야율초재

야율초재에 대한 평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몽골의 칭기즈칸이다. 고려도 몽골 침입으로 피해가 매우 심했다.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고, 이후 팔만대장경이 완성되기도 하였다. 몽골족이 지나간 자리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남지 않을 만큼 매우 '잔인한 민족'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다. 그나마 이런 몽골인들의 잔인성과 야만성을 잠재운 사람이 있다. 바로 야율초재(耶律楚材, 1190~1244)이다. 역사적으로 야율초재는 칭기즈칸의 책사요, 불교적으로는 조동종 만송 행수(萬松行秀, 1166~1246)의 제자이다.

상하이대학 역사학자이자 세계적 문화평론가인 위치우이(余秋雨, 1946~)는 야율초재에 대해 "이민족 사람으로서 한족 학자보다 더 뛰어난 문장가요, 학문적 소양을 지닌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중국 역사가들은 "야율초재가 없었다면, 중국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를 높이 평가한다. 현 중국에서 초재에 관해 평전도 많고, 그의 동상이 중국 전역 수여 곳에 세워져 있다.

야율초재가 살았을 당시 국제정세를 보자. 야율초재는 거란족 요나라 사람이다. 여진족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킨 후 요나라는 금나라에 복속되었다. 이후 금나라는 점차 세력을 키워 송나라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 이 무렵, 몽골에서는 칭기즈칸이 부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세력을 키우는 중이었다. 송나라는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송'이라고 칭했다.

야율초재의 禪수행

야율초재는 요나라 황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아 천문 · 지리 · 수학 · 불교 · 도교 · 유학 등 여러 학문에 능통했다. 초재는 송나라 과거시험에 합격해 선비의 길을 걸었으나 부친이 금나라 관리였기 때문에 전란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야율초재는 성안사(聖安寺) 징공(澄公) 선사에게 사사했다. 초재는 징공의 추천으로 27세 무렵, 조동종을 중흥시킨 만송 행수의 제자로 입문해 참선을 시작했다. 만송은 초재의 문집인 〈담연거사문집〉 서문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담연 거사는 27세 때부터 나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법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모두 잊었으며, 세간의 명리에 착하지 않았다. 담연은 마음의 도리를 크게 구하여 신묘한 경지를 정밀하게 추구하였다. 추위와 더위,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참구하기를 3년 만에 도를 얻었다. 이에 나 만송은 그에게 게송을 내리고, 담연(湛然)이라는 법호를 주었다."

한편 야율초재는 만송 행수의 〈종용록(從容錄)〉 서문에 자신의 선 수행 과정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선종 법맥도에 만송 행수의 법맥으로 야율초재가 기재되어 있다. 선종사에서는 야율초재를 '담연거사'라고 한다.

야율초재 스승인 만송 행수는?

만송 행수는 조동종 14대 선사로 자는 보은(報恩)이며, 호는 만송노인(萬松老人)이다. 만송은 15세에 하북성 형주 정토사 찬윤에게서 삭발하였다. 만송은 경수사 승묵광에게서 수학하였고, 이어서 자주(磁州, 현 하남성) 대명사 설암만 문하에 들어가 공부한 후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만송은 자신의 삭발 본사인 정토사로 돌아와 '만송헌(萬松軒)' 토굴을 짓고 살았다. 1193년 27세 때, 금나라 장종(章宗, 1168~1208 재위) 황제의 부름을 받아 궁에 들어가 법을 설하고, 금란가사를 받았다. 금나라 장종이 그를 존경했는데 선사가 설법을 할 때, "장종황제는 몸을 굽혀서 예를 올렸다(于內殿說法, 章宗躬身迎)"는 기록이 전한다.

요나라 황족 출신으로 학문 능통
조동종 만송 제자… '담연' 법명
칭기즈칸-오코타이代 책사 활동
마음공부로 살생 죄의식 일깨워
원나라 법령 · 제도 초석 놓기도



칭기즈칸의 책사 야율초재의 동상. 조동종 만송 행수의 제자였던 그는 불교를 통해 몽골인들에게 살생에 대한 죄의식을 일깨웠다.

1234년 금나라가 멸망하고, 원나라가 들어섰다. 만송은 몽골 조정으로부터 예우를 받았다. 97년 원나라 역사에 국사가 아홉인데, 만송이 이 가운데 한 명이다.

원나라 쿠빌라이칸(太宗, 1234~1241) 재위 무렵, 만송은 북경 보은사 도량 내에 종용암(從容庵)에 주석하며, 〈종용록〉을 저술하였다. 〈종용록〉은 제자들에게 굉지 정각(宏智正覺, 1091~1157)의 공안 100칙을 뽑아 설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야율초재가 7번이나 찾아가 권유해 어록을 저술했다고 한다. 특히 〈종용록〉 서문에서 야율초재는 만송에 대해 "조동의 혈맥을 이었고, 운문의 선교(善巧)를 갖추었으며, 임제의 기봉(機鋒)을 구족했다"고 서술하였다.

만송은 유교와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팔만대장경을 세 번이나 간경하였다. 당시 강남의 천동 여정(天童如淨, 1163~1228)과 함께 '조동종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었다. 만송은 선사지만, 화엄에도 정통했으며 정토를 추종해 금나라 정토종의 5대에 해당한다.

만송은 1246년, 세납 81세로 종용암에서 입적했다. 다음은 만송의 열반송이다. "팔십일 년 동안 / 이 한 마디뿐 / '여러분 잘들 있게' / 부디 그릇되게 알지 말라.(八十一年 只此一語 珍重諸人 切莫錯擧)" 입적 후에 사리탑을 두 곳에 나누어 세웠으나 북경에만 그의 탑이 있다.

만송 문하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법을 얻은 제자들만 120인이고, 야율초재를 비롯해 뛰어난 제자에 다섯 명이 있다(五傑). 만송은 금나라 · 원나라의 조정대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대부 문인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선종의 종장으로 당시 종교계 · 정치계 ·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 이른다.

야율초재와 칭기즈칸

몽골의 칭기즈칸은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서 뭔가 허전함을 느꼈다. 칸은 자신에게 정신적 지주가 될 인물을 백방으로 찾았는데, 요나라의 야율초재가 적격인물이었다. 결국 징기스칸은 당시 금나라 지배를 받고 있던 요나라의 야율초재를 책사로 모셨다.

야율초재는 '우주 만유 도리를 탐구하고, 성품을 닦는 일에는 불교의 가르침보다 더한 것이 없으며, 세간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데는 공자의 가르침이 마땅하다. 나라 일을 하는 데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나(我)를 버리는 일에는 불교의 진여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칭기즈칸의 책사 임무를 시작했다. 즉 그는 유교로서 나라에 봉사하고, 불교로서 마음을 다스린다(以儒治國 以佛治心)는 취지였다고 볼 수 있다. 칭기즈칸은 주위 신하들에게 야율초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 앞으로 야율초재를 내 곁에 두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것이다."

초재는 칭기즈칸 곁에서 보필하였고, 칭기즈칸 또한 초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초재는 도교의 도사를 초빙해 칭기즈칸의 마음공부를 도왔고, 살생의 부도덕성과 생명의 존중성을 일깨워 주었다. 칸이 죽기 한달 전, 군신들에게 '정복을 해도 사람을 살상하지 말고, 노략질하지 말라'는 포고를 내렸다. 또 칸은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야율초재는 하늘이 우리 가문에 준 인물이니 그의 뜻에 따라 국정을 행하라."

야율초재는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2대 오고타이 시대까지 책사를 지냈다. 한번은 초재가 전쟁 중에 오고타이 칸을 찾아가 이런 진언을 하였다. "우리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쟁을 벌이는 것도 모두 땅과 백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땅을 얻어도 만약 백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물은 풍족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또 한번은 오고타이 칸이 송나라의 전쟁 포로가 잡혔는데, 이들에게 사형 집행을 내리려고 하였다. 초재는 오고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풍성한 것을 만드는 기술자들과 재화 늘려주는 부자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모조리 죽이면, 전쟁에서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대 오고타이 왕이 일찍 죽자, 왕비가 섭정을 시작했다. 초재는 왕비와 왕비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아 정치적으로 숙적 관계였다. 결국 그는 정치적인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55세에 화병으로 죽었다. 초재가 죽자, 정적들은 그의 가산을 몰수해야 한다며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그런데 막상 조사해보니 그의 재산은 거문고와 악기 10여개, 그림 몇 점과 수천 권의 책뿐이었다.

야율초재의 인생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보자. 첫째, 야율초재는 불교신자로서 참선을 하였던 인물이다. 이런 종교관이 있었기에 몽골인들에게 생명 살상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하였고, 생명 중시를 일깨워주었다.

둘째, 초재는 몽골이 중국 전토를 통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 법률이나 국가 운영 방식, 관리제도 등 국가 초석을 다지는 데 일조를 하였다. 그가 제안한 법률이 원나라가 존립할 때까지 실행되었다.

셋째, 초재의 인생관이 남긴 명언에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與一利不若除一害, 生一事不若滅一事)"라고 하였다. 동서양을 떠나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은 명리를 이용한 과욕으로 추락하는 인물이 대부분이다. 야율초재도 정치인이지만, 그는 청빈한 수행자의 삶과 소탈함이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까지 바꿔놓았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20년 8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 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권공의식 **원서교부** | 2020년 8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0년 9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

고등강원내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0년 6월~ 교육중
교육기간 | 6개월 (2020년 6월~11월 11주 교육)
장 소 | 제천 금강사 (☎043-646-3800)
교육내용 | ① 근본불교성전, 원각경 : 활안큰스님
② 금강경오가해 : 혜림스님
③ 유 식 : 서무선 학장님
문 의 | 금강선원 사무국 (☎ 02-969-2410)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茶 본질 드러내는 '물' 가치 시로 표현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⑯ 문인의 차 생활

고려 시대 차 문화를 주도한 그룹 중에는 관료 문인들이 있다. 이들은 차를 향유하는 즐거움과 차의 고결한 가치를 서정적이며 철학적인 어휘로 표현하여 이 시대의 차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차에 대한 찬미는 대개 시로 표현되었고, 문집이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같은 문헌에 수록되어 있으며 대략 12~4세기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3~14세기는 무신정권의 득세와 몽골의 침략을 겪던 시기이다. 대몽항전은 1231년부터 30여 년간이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국가가 풍전등화에 놓여있는데도, 고종 19년(1232)에 최우가 강행한 강화 천도는 왕실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었지만 백성의 고통은 컸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 최우는 많은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천도한 것인데, 이는 고려 왕실이 몽골의 재침을 방어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위란의 상황에서도 최우의 사치는 식을 줄 몰랐으며, 왕족이나 귀족들도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었다. 이들은 강화에 저택과 사원을 짓고 팔관회와 연등회 등을 호화롭게 열었다. 고려 왕실이 다시 개경으로 환도(1270)한 후 무신정권은 몰락하지만, 원의 지배하에 들어가 몽고풍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13세기 후반 원의 지배를 받기 이전의 고려 후기 차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기를 살았던 김극기(?~1209)는 승려들과 교유하며 차를 즐긴 문인으로 다시(茶詩)를 통해 차를 노래했다. 그의 시는 격조가 맑으며 내용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무신 정권기에 사대부로서 왕실의 안위와 백성을 걱정하며, 전원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정치적인 혼란기에 사대부의 처신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특히 그가 지은 〈박금천(薄金川)〉은 평양부에 위치했던 샘물의 이름이다. 차를 다리기에 좋아 온종일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차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이다.

한 줄기 날낸 샘물, 처음 발원한 곳은(一道飛泉始發源)
인가가 끊어진 유산의 뿌리라.(紅儜斷處乳山根)
달고 서늘한 기미가 차 다리기에 적당하여(甘凉氣味宜烹茗)
힘들게도 도성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길어가네(苦被都人汲引喧)
이 물은 어느 곳에서 발원한 것인가.(一水來從何處源)
유산 아래 흰 구름 피어나는 바위라.(乳山山下白雲根)
차를 다리려고 처처에서 서로 길어 가니(試茶處處人相汲)
오가는 사람들로 온종일 시끄럽네.(人去人來盡日喧)

윗글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평양부'에 수록된 김극기의 시다. 평양부에는 차를 아는 이가 많았는지 박금천을 길어가기 위해 하루 종일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차는 물이 중요하다고 말한 논서가 많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차의 색향기미는 물에서 피어난다. 더구나 물이 생명의 근원임에랴. 그러므로 물은 차의 근원이라 인식한 셈이다. 무엇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평탄하게 해 주는 차의 본질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물이 필요하다. 당나라 육우(陸羽)가 물을 평가하여 20여 종으로 분류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정한 물의 기준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이십탕품(二十湯品)〉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나라 지배전 고려후기 문화는
풍요롭고 화려한 왕실귀족 대변
'찻물'로 유명한 샘물엔 줄서기도
문인들, 물 · 불 가치 명확히 인식

육우가 물의 등급을 말한 것은 대략 20종인데, 여산의 강왕곡수렴수를 첫째로 쳤고, 두 번째가 무석 혜산사의 석천수를, 기주의 난계석 아래 물을 세 번째로 쳤다. 네 번째가 협주의 선자산 아래 하마구수를 쳤고, 다섯째가 소주의 호구사 석천수를, 여섯째가 여산 초현사 아래 방교의 담수를, 일곱 번째가 양자강 남영수를, 여덟 번째를 홍주 서산의 폭포천을, 아홉 번째를 당주 동백현 화수원을, 열 번째를 여주 용지산령수를, 열한 번째를 단양현 관음사의 물을, 열두 번째를 양주 대명사의 물을, 열세 번째를 한강 금주 상류 중에 영수를(물이 쓰다), 열네 번째를 귀주 옥허동 아래 향계수를, 열다섯째를 상주 무관 서락수를, 열여섯째를 오송 강물을, 열일곱째를 천태산의 서남봉 천장폭포수를, 열여덟째를 유주의 원천수를, 열아홉째를 동려 엄릉탄수를, 스무 번째를 설수로(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너무 차다.)정했다.(陸羽論水次第 凡二十種 廬山康王谷水簾水第一 無錫惠山寺石泉水第二 蘄州蘭溪石下水第三 峽州扇子山下蝦蟆口水第四 蘇州虎邱寺石泉水第五 廬山招賢寺下方橋潭水第六 揚子江南零水第七 洪州西山瀑布泉第八 唐州桐柏縣淮水源第九 廬州龍池山嶺水第十 丹陽縣觀音寺水第十一 揚州大明寺水第十二 漢江金州上游中零水第十三(水苦)歸州玉虛洞下香溪水第十四 商州武關西洛水第十五 吳淞江水第十六 天台山西南峰千丈瀑布水第十七 柳州圓泉水第十八 桐廬嚴陵灘水第十九 雪水第二十(用雪不可太冷)



초의선사의 16나한도 중 6번째 그림.

윗글은 명대의 〈속다경(續茶經)〉에 수록된 내용이다. 육우가 찻물로 적합한 천하의 물들을 분류하여 20곳을 지정한 것이다. 이에 무석의 혜산사 샘물과 양자강의 남영수는 후대에 좋은 물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차에 밝았던 승려나 문인들은 육우의 이십탕품에 관해 이해했을 것이며 실제 차 생활에도 응용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고려 시대의 문인들이 논한 품천(品泉)에 대한 이해는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엄 선사를 찾아가(訪嚴師)〉에서도 확인된다.

내가 지금 산방을 찾은 것은(我今訪山家)본래 술을 마시려는 것이 아닌데(飮酒本非意)올 때마다 술자리 베푸니(每來設飮筵)얼굴이 두꺼운들 어찌 땀이 안 나겠는가(顔厚得無泚)스님의 격조 높은 것은(僧格所自高)오직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 때문이라(唯是茗飮耳)좋은 몽정의 차를 가져다가(好將蒙頂芽)혜산의 물로 달인 것임에랴(煎却惠山水)차 한 잔 마시니 문득 뜻이 통하고 (一甌輒一話)점점 심오한 경지로 들어가네(漸入玄玄旨)이 즐거움이 참으로 청담하니(此樂信淸淡)어찌 술에 취할 필요가 있으랴(何必昏昏醉)

윗글은 혜산수가 천하의 명천으로 상징되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이다. 차를 향유하는 아름다움을 가장 많이 노래한 것도 이규보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무신 정권기에도 차 문화는 간단없이 꽃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는 고려 후기 대표적인 다인(茶人)으로, 차를 알고 불교의 오묘한 이치를 짐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고승을 찾아가 나눈 일담(一談)은 분명 현묘한 이치를 공감하는 청담(淸談)이었을 것이다. 그가 말했듯이 당시 차를 끓이고 마시는 일은 승방의 일과였고 수행자의 격조 있는 삶이었다. 속인 이규보가 찾아오니 술을 대접하는 수행자는 분명 승속을 초월한 경지를 지닌 걸림 없는 수행자의 모습이다. 물론 술을 좋아한 이규보야 이런 대접이 싫지 않았겠지만, 짐짓 "올 때마다 술자리 베푸니(每來設飮筵)/ 얼굴이 두꺼운들 어찌 땀이 안 나겠는가(顔厚得無泚)"라고 말했다. 이는 그의 겸손함이 함께 묻어난 절구(絶句)라 하겠다. 그런데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첨언(添言)이 있다. 바로 "선사는 여간해서는 술을 내놓지 않았으나 나에게만은 반드시 술을 대접하였다. 그러므로 시를 지어 사양하였다.(此師稀置酒°見我必置°故以詩止之) "라는 대목이다. 이는 뜻이 통하는 지기(知己)를 대하는 태도일 것이니 승속의 우정을 짐작하게 한다.

원래 차를 향유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은 첫째 검소하며 맑은 정신세계를 지향해야 하고, 둘째 좋은 차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며, 셋째 찻물을 분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센 불과 약한 불(文武火)이 교차되면서 만들어내는 화후(火候)의 묘미를 터득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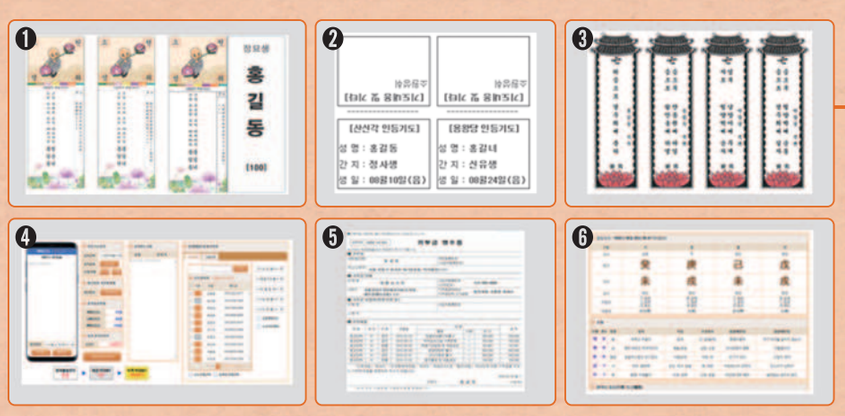
온전한 차를 얻었다면 이를 잘 드러낼 물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어떤 불로 물을 끓일지도 중요하다. 옛 다서(茶書)에는 물을 끓일 때 숯불의 불꽃이 어떻게 피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화로에 불꽃이 모두 붉어지면 비로소 다관을 화로 위에 올려놓고 부채로 가볍고 빠르게 부치는 것이 중요하다. 탕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점점 세고 빠르게 (부채를) 부치는데, 이것이 문무의 화후이다. 만약 문화가 지나치면 수성이 유약해지고 수성이 약해지면 물이 차를 누르게 되며, 지나치게 센 불로 물을 끓이면 수성이 매서워진다. 수성이 매서우면 차가 물을 제압하므로 모두 중화를 이루기에 부족하다.(爐火通紅 茶瓢始上扇起 要輕疾 待有聲稍稍重疾 斯文武之候也 過于文則水性柔 柔則水爲茶降 過於武則火性烈 烈則茶爲水制 皆不足於中和)

윗글에 따르면 문화는 약한 불이고 무화는 센 불이다. 문무화를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인데, 이는 탄력이 있는 불에서만이 차를 잘 드러낼 탕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과 차, 불은 차의 삼요소다. 이를 잘 조화롭게 운영하는 사람만이 차의 오묘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검색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낙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깨진 그릇에는 죽 담을 수 없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㉛ 隨處作主 立處皆眞

"여러분, 그대들이 만약 법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대장부라야 하느니라. 줏대 없이 흔들리는 시든 풀처럼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깨진 그릇에는 제호(醍醐, 죽)를 담을 수 없다. 큰 그릇이 되는 인물이라면 남에게 속지 말고 어디서나 주인이 되어, 있는 자리가 진실해야 한다. 밖에서 오는 것은 뭐든지 받아들이지 말라. 그대들이 한 생각이라도 의심하면 곧 마군이가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다. 설사 보살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생기면 생사의 마군이가 틈을 노려 들어와 버린다. 다만 망념을 쉴 뿐이요, 다시는 밖으로 구해서는 안 되느니라. 경계가 오면 비춰 주면 그만이다. 그대들이 다만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느니라. 그대들의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이 삼계를 만들어 낸다. 그리하여 인연따라 경계에 붙잡혀서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육진으로 나누어져 버린다. 그대들이 지금 응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모자라는가? 한 찰나에 바로 정토(淨土)에 들어가고 예토(穢土)에 들어가며,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며 삼안국토(三眼國土)에 들어가 곳곳으로 돌아다니지만, 오직 헛된 이름만 보고 다닐 뿐이니라."

여법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선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공부는 상근기(上根機)라야 제대로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법기(法器)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도(道)가 채워지지 않는 법이다. 〈임제록〉 전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이 대목에서 나왔다. "어디서나 주인이 되라. 있는 자리가 진실해진다.(隨處作主 立處皆眞)"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이란 자기 주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깨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이 새듯이 객관경계를 의식하면서 번뇌의 허물이 새어나가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나'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 행세해 봐야 쪽박 차고 얻어먹는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계주유(繫珠喩)의 비유처럼 부유한 친구가 가난한 친구에게 값나가는 구슬을 옷깃 속에 넣어 주었는데,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가난한 친구는 부유한 친구가 구슬을 걸어주고 갔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곳곳으로 다니며 거지 행각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내는 꼴과 같다는 뜻이다. 무가보주(無價寶珠)가 자기 옷 속에 있은 줄을 모르고 지낸다는 것은 중생의 불성에 무한한 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무명 번뇌에 시달리며 살고 있음을 풍자한 비유이다.

'서암주인공'이란 공안이 있다. 서암사언(瑞巖 師彦)이 자기 스스로에게 "주인공아!" 하고 불러놓고 "예" 대답을 하고 또 "정신 똑똑히 차려 속지 말라"는 말을 매일같이 하고 지냈다는 것이다. 스스로 불러놓고 자문자답을 하여 쓴 말이 다른 사람들의 화두가 되었던 것이다. 염송설화에는 현사 사비가 어느 학인이 찾아왔을 때 주고받은 말이 소개되어 있다.

"어디 있다 왔는가?"

"서암 회상에 있다 왔습니다."

"서암은 어떤 말을 했는가?"

"늘 주인공아 하고 부른 뒤에 깨어 있고 남의 속임을 받지 말라 합니다."

"헛것과 놀아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기이하구나. 왜 그곳에 있지 않고 여기로 왔는가?"

"서암 스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불러놓고 대답하겠는가?"

학인이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하였다.

'주인공'은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 누구나 자기 주인공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다. 이 유아독존의 주인공을 두고 임제는 어디서나 주인이 되라고 한 것이다. 이 주인공은 정토와 예토를 가리지 않으며, 미륵 누각이나 삼안국토에 마음대로 드나든다 하였다. 삼안국토는 눈이 세 개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원래 〈화엄경〉에 나오는 말로 법안(法眼), 지안(智眼), 혜안(慧眼)의 세 개의 눈을 말하지만 선가에서는 중도를 터득한 제 3의 눈, 정안(正眼)을 얻어 있는 것을 말한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오늘날도 꼭 새겨야 할 '법연사계'



세상 속 경전읽기

㉛ 법연사계(法演四戒)

오조 법연(五祖 法演, ?~1104) 선사는 송(宋)나라 사천성(四川省) 면주(綿州) 출신으로 임제종(臨濟宗) 양기파(楊岐派)에 속한다. 35세의 늦은 나이에 출가하여 유식학(唯識學)을 배우고, 호북성(湖北省) 오조산(五祖山)에서 선풍(禪風)을 일으켰으며, 조주(趙州)의 '무(無)' 자 수행을 역설하였다. 〈법연선사어록(法演禪師語錄)〉이 있으며, 그는 '삼불(三佛)'로 불리는 불과 극근(佛果 克勤, 1063~1125), 불안 청원(佛眼 淸遠, 1067-1120), 불감 혜근(佛鑑 慧懃, 1059~1117) 등의 제자를 배출한 당대 고승이었다. 불과 극근[圓悟克勤]은 〈벽암록(碧巖錄)〉의 저자이기도 하다.

법연 선사의 가르침 가운데 '법연사계(法演四戒)'라는 것이 있다. 〈만속장경(卍續藏經)〉의 〈선원몽구요림(禪苑蒙求瑤林)〉 권 하(卷 下)에 나오는 것으로, 그의 제자 불감 혜근이 서주(舒州)의 태평사(太平寺) 주지를 맡게 되자 선사가 스승으로서 일러준 간곡하고 요긴한 당부의 말씀이다.

"불감 혜근 화상이 처음으로 서주 태평사 주지로 가게 되어, (스승인) 오조법연 선사께 작별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법연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주지 노릇을 할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세력[勢]을 다 사용하지 말고, 둘째는 복을 다 받아쓰면 안 되고, 셋째는 지켜야할 규율과 법도를 (너무 엄격히) 다 시행하지 말고, 넷째는 (너무) 좋은 말만 다하지 말라.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얕)보고, 규율과 제도를 (엄격히) 다 시행하면 사람들이 번거로워 하며, 만약 복을 다 받아쓰면 주변에서 따돌림을 받고, 권세를 다 부리면 반드시 화(禍)가 미치기 마련이다.' 불감화상이 (공손히) 두 번 절을 올리고, (스승의)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물러났다."

〈禪苑蒙求瑤林 第3卷 X87n1614_0094a01-06〉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직책을 맡게 마련이다. 직책이 높아질수록, 직책에 익숙해질수록 초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주어진 권한을 공적인 일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하는데, 어느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일이 많아진다. 직책의 상하관계를 사람의 상하관계로 착각하기도 한다.

100의 물건을 둘이 나누어가져야 할 때 객관적으로 50:50으로 나누어가지면 공평하게 나누어가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기보다 받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떡을 똑같이 나누어가졌는데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는 것이다.

어린 형제에게 어머니가 먹을 것을 똑같이 나누어주어도, 심술궂고 욕심 많은 형인 경우, 힘 센 형은 동생 것이 더 커 보여, 강제로 동생 것과 자기 것을 바꾼다. 그러면 또 동생 것이 커 보여 다시 바꾼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사회생활에서 고립되게 된다.

그래서 6바라밀의 첫째가 보시(布施)로 주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다. 주는 기쁨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 주어본 사람은 계속 주려하고, 보살정신이 배양되어 자기가 쌓은 복덕을 중생에게 모두 회향[普皆廻向]하게 된다. 지은 복을 혼자 다 누리지 않고 회향으로 나눌 때 불국토가 된다.

아무리 법도에 맞는 옳은 일일지라도, 남의 그릇됨을 강강하게 시비만 하지 말고, 때로는 관용을 베풀고 바로 잡을 기회를 줄 경우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하지 말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하는데, 마냥 좋은 말만 하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다. 법연사계는 오늘날의 세속사회에서도 꼭 새겨서 실천해야 할 훌륭한 가르침이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⑰ 닦음의 길 17

지관, 멈추니까 보이더라

〈止觀〉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현대인에게 잠시 멈추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소중한 가치들이 비로소 보인다고 말한다. 이 책은 일반인에게도 많은 인기가 있었고 저자인 출가사문을 스타로 만들기도 했다. 이 멋진 제목은 천태종의 수행체계인 지관(止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과연 멈추면(止) 어떤 것들이 보이는(觀) 것일까?

지관은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에 의해 확립된 수행법이다. 이 수행체계는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8정도의 정정(正定)과 정념(正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정정은 지(止), 고요해진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념은 관(觀)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지관은 정정과 정념을 천태적으로 해석한 수행법이다. 이는 선정(定)과 지혜(慧)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수행이 문화, 종파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관은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止) 존재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觀) 수행이다. 천태 대사는 열반에 이르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지관이 가장 핵심적인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지(止)는 번뇌를 제거하는 최초의 문(初門)이자 선정의 근원이며, 관(觀) 또한 미혹을 끊는 바른 요체(正要)이자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와 관을 수레의 두 바퀴, 또는 새의 양쪽 날개로 삼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선정만 닦으면 어리석음(愚)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지혜만 강조하면 미친(狂) 행위로 전락하고 만다. 결국 한쪽으로 치우친 수행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깨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천태종에서는 삼종지관(三種止觀)이라 해서 지관을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점차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점차지관(漸次止觀)이다. 이는 마치 1층부터 계단을 하나씩 밟으면서 맨 꼭대기에 오르는 것과 같다. 첫 마음을 낸 수행자는 먼저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는 등의 계행을 실천한 다음 선정을 닦아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수행이 깊어지면 마침내 존재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깨침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일정한 순서 없이 수행하는 부정지관(不定止觀)이다. 어느 때는 점차적인 단계대로 수행하다가 때로는 곧바로 깊은 경지의 수행을 하는 경우다. 사람마다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처음부터 존재의 참 모습을 원만하고(圓) 즉각적으로(頓) 깨치는 원돈지관(圓頓止觀)이다. 이는 매우 뛰어난 근기의 수행자들만 행할 수 있는 실천이다. 마치 점차지관처럼 한 계단씩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를 타고 곧장 맨 꼭대기 층에 오르는 것과 같다. 이는 중생이 곧 부처이고 번뇌(煩惱)가 보리(菩提)며, 생사(生死)가 열반(涅槃)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일시에 깨치는 일이다.

천태의 지관수행은 불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오늘날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인류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 등 많은 것이 멈춤으로써(止) 적지 않은 소중한 가치들이 보이기(觀) 시작했다.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연과 환경이 인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인류 문명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 말이다. 이제는 우리가 멈춰 서서 답할 차례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탐욕엔 상응하는 댓가가 있다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⑯ 성스러움과 속됨



성직자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성직자가 도둑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직자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성추행범이 되고 맙니다.
성직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수로 수감됩니다.
성직자나 살인자는 타고나지 않고 신분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있군요.

16-1 앙굴리말라는 부처님 당대에 살인마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원래는 브라만 계급으로 한 종파의 수제자였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지방으로 떠나면서 앙굴리말라에게 사모님과 제자들을 잘 보살피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존경하는 스승의 분부를 성실하게 이행했지요. 스승이 며칠 후 돌아왔을 때 그를 시샘하던 제자 하나가 스승에게 그가 앙굴리말라가 사모님과 통정했다고 음해합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와 질투를 애써 감추고 스승은 앙굴리말라에게 평소처럼 자애롭게 이야기 합니다. "네가 나 없는 동안 사모님과 제자들을 잘 보살폈으니 너에게만 비법을 전수하겠다. 천명의 손가락 마디로 목걸이를 만들면 진리를 얻게 될 것이야. 그러겠느냐?" "예, 스승님." 그날부터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이는 살인마가 됩니다. 마지막 손가락 마디를 채우려다가 길을 가는 부처님을 만납니다. 옳다구나 하고 잡으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쫓아가도 부처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까까중아, 게 멈춰라"고 소리 지릅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돌아보며 "나는 이미 멈추었다. 너야말로 멈추거라" "무슨 궤변이냐?" "너는 살인과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탐욕과 분노를 멈추었다" 부처님의 온화한 모습과 자비로운 말씀에 감화된 앙굴리말라는 그날로 출가하여 음해의 가르침과 자신의 명예욕으로 인해 살인한 어리석음을 깨닫고 열심히 수행하여 번뇌를 끊은 님이 됩니다. 그는 원한에 찬 유족들의 돌멩이 세례를 받지만 조금도 원한 없이 고요히 죽음을 맞습니다.

16-2 인도에서 브라만 계급은 태생적으로 성직자입니다. 천민 계급은 영원히 천민입니다. 이것은 브라만교(또는 힌두교)의 불문율입니다. 그러나 브라만도 천민도 태생적으로 숙명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불문율을 비판하고 나선 종교혁명가가 있었으니 고타마 붓다가 바로 그입니다. 그는 행위에 의해 그 사람이 결정된다 하였습니다. 업(카르마-행위)) 결정론은 운명론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운명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기치면 성직자가 아닌 사기꾼이 되고 천민이라도 행위가 삶이 청정하고 고결하면 성직자가 된다면서 당시 브라만교의 고정된 계급관을 통박합니다. 그래서 붓다는 철저하게 출생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제자를 거두었지요. 대대로 성직자 지위를 누리던 브라만 계급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기에 붓다는 수없는 브라만 사제들의 도전과 공격을 받습니다.

16-3 수행자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닦는 이를 일컫습니다. 성직자는 외양적 의복이나 종교 의례를 집전하는 형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념으로 삶을 수행에 헌신할 때 붙여지는 존칭입니다. 우리가 흉내 내기 어려운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즈음은 행위를 맑히는 자가 아닌, 성스러운 장소나 성스러운 분위기 등 외적 성스러움에 가치를 부여하여 그 속에 안주하고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보다 성스럽고 권위롭기 위하여 더 높은 첨탑과 더 큰 불상의 웅장한 사원과 교회를 짓습니다.

16-4 장자연 사건이 잊혀질만 하자 최숙현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 다 연예계와 체육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의 단면입니다. 폭력행위는 성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가 항거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들이지요. 참혹하게 인격을 유린하여 그 분노와 억울함이 극에 달하건만 감독 기관과 사법 기관이 약자보다는 강자에 휘둘려서 해결될 기미가 없자 극단적 자살로 세상에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원성에 공권력이 침묵하면 사회 정의가 어디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성폭행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피해 사실을 조사한다며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힘의 우월 관계를 이용한 갑질이 다양하게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 현장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와 사찰에서,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앙굴리말라에 대한 가르침
'현재의 행동, 미래의 결과'
'업'이란 행위 책임 가져야

자살도 폭력이고, SNS나 인터넷, 언론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권력의 맛은 마약처럼 끊기 어려워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르치고 명령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 아랫사람의 순종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고 지배욕을 부추깁니다. 계급의 권위에 눌려 자기 의사를 솔직히 표현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는 거지요.

16-5 언어적 폭력을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야단치고 비난하고 욕설하여 아이들의 마음에 멍을 남기면 그 행위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학습되어 자라서 자신도 그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최근까지도 가정 폭력은 가정사라고 보아 넘겨 출동한 경찰들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집요하게 따라 다니는 스토킹은 결별을 선언한 애인에게 집까지 찾아가 살해 위협을 하건만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모까지 살상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그 누구도 소유물이 될 수 없는 존중 받아야 할 존재라는 보편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16-6 무아의 심리사회적 의미는 무소유입니다. 자식은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함부로 학대하는 행동을 낳습니다. 아동 학대의 주범은 대부분 부모입니다. 병적 애착과 혐오로 기인한 상처가 평생을 지배하고 삶에서 폭력적 성향을 표출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 무지의 신념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붓다는 선언합니다. 12연기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이 그릇된 행동을 낳는다(無明緣行)"로 시작합니다. 올바른 견해와 생각이 바른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과오를 자각하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노자도 "낳되 소유하지 않고(生而不有) 기르되 지배하지 않는다(長而不宰)"고 도와 덕을 정의합니다. 만물을 낳았으되 자기 것으로 삼지 않음은 도의 품성이고 만물을 기르되 지배하지 않음은 덕의 작용이라는 뜻으로 현대의 참교육의 원리가 담겨 있군요.

16-7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의 영향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탁월한 진리입니다. 〈밀린다 팡하〉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인 메난드로스(밀린다) 왕이 인도의 고승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빈천한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선량하고 어떤 사람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라도 업이 다르므로 성격도 삶의 방식도 다르다는 것으로 80억 인구면 80억 종류의 삶이 제각각 펼쳐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주인공이 되어 개성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책임을 운명이나 신이나 부모와 나라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자신의 삶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운명이나 신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펼치느냐는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깨달은 님의 가르침입니다.

16-8 윤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다구요? 그러면 불자가 아니군요.(웃음) 계절이 순환하듯이 업설이나 윤회설은 믿음이 아닌 사실입니다. '업이 생을 이어 상속된다'는 가르침은 단순히 윤회한다는 믿음을 넘어서는 혁명적 사유입니다. 불변의 영혼이 있어서 태어나기 전이나 갓난아기 때나 청소년기나 장년기를 거쳐 노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자아가 있다고 믿고 그 영혼이 다시 환생하거나 전생한다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그런 영혼은 없고 몸이 죽으면 끝이라는 견해가 자리하고 있지만, 붓다는 행위로서 업이 연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과거생의 나와 현재 생의 나와 미래 생의 나는 불변의 나가 아니고 동일하지 않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아기의 내가 있고 청소년의 내가 있고 노년의 내가 있듯이, 행위(업)에 따라 수시로 의식이 변하고 마음 상태가 변하며 그 업이 전생으로부터 다음 생까지 면면히 이어진다고 니까야(초기경전)에서 붓다는 누누이 설명합니다.

16-9 위에서 열거한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는 제어되지 않은 탐욕과 분노가 똬리를 틀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앙굴리말라에서 새겨보아야 할 점은 첫째, 살인자마저 본래부터 살인자가 아니라 잘못된 신앙과 자신의 탐욕이 살인을 행하게 하는군요. 둘째, 살인자마저 수행자가 될 수 있고 깨달으면 탐욕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존경하는 스승이나 경전의 가르침이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숙고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이 한 행동은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의도를 잘 살펴보아 참회하면 자신의 업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다음 생에 가지고 갈 유일한 자산은 자신이 평생 살아온 행위(업)라는 붓다의 가르침은 자살이 모든 것의 해결이거나 끝이 아님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건 무언가 밝고
맑고 빛나고 담백하다.
속됨은 무언가
어둡고 탁하고 칙칙하고 끈적거린다.
성과 속의 차이는 욕망의 절제와 욕망의 추구.
욕망의 파노라마에서 방향의 전환.

〈한별정신건강병원장〉



영가 찾는법

연결카페 : 백암역리원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는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매사에 장애, 신경성, 우울증, 공부가 안되는 학생, 결혼이 안되거나 가정의 풍파, 병명이 안나올 때는 영가의 작용으로 불 수 있다.

대 상
명리 및 육효초보반, 영가특강반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먹자거리 골목 안 200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감은사
- 주 지 : 보문 (속명 / 김기남)
- 주 소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길 106-7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과
수행종풍이 맞지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5호 | 15 | 전면광고

너는 장차 이 세상에서 나무 아래 앉아서 풀을 깔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악마의 권속들을 항복받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현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사찰화재 보험
• 목조건축물 OK!! •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똑소리나게 풀어냅니다.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누구나 풀수 있구요.
▶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 인생, 인체의 병, 영가, 일년신수, 왜! 원인과 해결)
▶ 과거/현재·미래·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①네이버 운명자가진단 손금보기
②유튜브 손도사 동영상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감나무골 운송도암
010-9208- 3835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살풀이,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 남 · 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술술 풀리는 사주강의
스님들, 불자님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절운영과 삶에 큰 도움이 될 사주를 2개월 만에 막힘없이 술술 풀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장소는 경주시이며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강의 할 것입니다
010-7307-1727

"록명법"
취업·입시
각종 수험생
합격 100% 비법
010-7189-7674
010-5904-3759

• • •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 • •
010-8833-4416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제의식 능통하신 분
• • •
경북 문경 쌍룡사
010-8819-8988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생각대로 되는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명 리 · 육 효 강 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대방광불화엄경 사상강연회!!
1. 초발심자가 문득 정각을 이루는 원리?
2. 중생이 금생에 성불하는 방법?
3. 세계적 대질병에 대한 법신불의 대약수는 무엇?
4. 교재는 「대방광불화엄경의 진실한 뜻을 밝힌다」
5.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6. 장소 : 예인스페이스(강남역 10번출구, 외환은행 뒷편 4층)
문의전화 ☎ 010-9150-1044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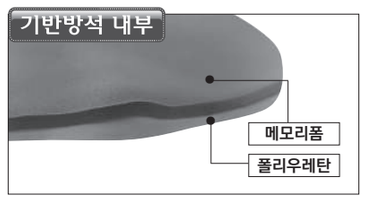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5호 | 16 | 전면광고

지금 이 순간을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19평. 공양간. 방1개. 7평 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 대지 : 60평 / 법인양도 가능
- 법당, 요사, 접견실, 나한전, 차고
- 도심포교 요충지(시설.비품 일체)
- 양도 또는 산중 사찰교환가능
- 양도가 : 3억 4천 (보시고 절충)

010-7763-4466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55평 ● 요사: 75평
- 대지: 500평 ● 임야: 4천평

※1300년 고목,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4990

사찰·기도(터) 안내

-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 부산 장림역1km 토지 5천여평
- 신촌초 옆 주거지 1천여평 포함
- 가액: 7억5천(은)3억3천 포함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0-9150-2284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문화재사찰
- 위치: 부산 최고의 바다전망
- 대지500평, 임야3600평
- 법당 산신각 천불전 요사체
- 가액 23억
- 스님건강상 매도

010-2104-20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 수락산역 등산로입구 (먹자골목)
- 약 30평 / 방3 / 법당 별도
- 총3층 건물 3층(옥상사용)
- 보증금 5천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5백만원

※ 불교서적 1천권 무료드림

010-5656-27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앞 도로변 3층
- 평수 : 50평, 방 3개 (도시가스)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없음

010-9110-3301

멋진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인근
- 대지 : 약 717평방(약 217평)
- (멋진 2층건물 1층 방5개 기도처) (2층 방3개, 거실, 주방, 밖 휴게공간) 마당, 잔디, 조경좋음 주차공간 확보
- 가액 : 3억에서 5천 빼드림(조정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동 진 불 사

◎ 위치 : 경북 영주시 장수면 소재
◎ 부지 : 1천평(종교용지)
◎ 법당 : 25평
◎ 요사채 : 30평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1억2천5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 조용한 산사에 위치한 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입니다.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1천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3포7포, 단청)
◎ 요사채 : 60평(목조, 황토)
◎ 산신각 : 10평(목조, 닷집, 단청)
◎ 기타 : 석탑, 석등
◎ 가액 : 9억2천만원
◎ 특징 : 1급수 계곡과 조경이 어우러진 대가람의 사찰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동진불사 010-4942-0455

좋은법당안내

- 위치 : 일산서구 큰도로 정류장앞
- 평수 : 약50평, 2층건물 2층, 삼존불 모심
- 전세 1천만원, 월세 60만원
- 기타시설비 보시고 결정
- 본인 건강때문에 인연 닫는 분께 양도

010-4029-515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천수천안사,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 시설금 2천 5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사찰(암자)안내

- 위치 : 세종시 전의면 (청정도량)
- 대지 : 550평, 삼성각4평 목재
- 건평 : 대웅전 24평 목재
- 요사채 : 약 30평, 황토방 10평
- 가액 : 6억 5천
- 주차장시설 완비

010-6768-71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 대지 : 114평
- 건물 : 법당, 요사채(방3, 주방, 거실, 화장실)
- 가액 : 1억 1천만원 (대출 2천5백 포함)
- 장호원 차로 5분거리, 공사중인 경전철 차로 8분거리

010-3326-785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
부 동 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010-4492-347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 중심 풍수대명당, 전주 한옥마을 10분거리, 사찰에서 전주가 한눈에 들어옴
- 등기면적 : 4백여평, 실제 사용평수 1천여평 국유지 절 뒤 1만여평 무상 사용중
- 석불(산신, 용왕, 아미타불, 지장보살, 약사여래불)1억5천 석불로 3천전 모심, 극락전 1억 3천전 신축, 약수터 최상, 대나무숲, 법당, 요사채 1억5천 3년전 편백나무 인테리어 시공(40평), 현재 도량 마당 1억 공사중
- 가액 : 5억(대출 2억5천 포함)

010-9647-0723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 황토구들토굴 방2개
- 본채앞 조립식 약4평 1년 8백만원
- 건물 7백만원

010-9288-00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송구 동산동 동산병원옆, 동산네거리 대도로접 3층
- 40평, 방2, 응접실, 다용도실, 3층건물 3층
- 보증금3백만, 월30만, 시설비 1천5백만
- 즉시 법회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1-9572-465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부지 : 500평(대지250평)
- 법당(16평), 종무소(6평), 창고 (4평), 종무소2(18평 콘크리트 건물 신축), 요사채+휴게실+창고(30평), 산신각
- 가액 : 4억 5천만원 (북원주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010-8969-50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암자
- 대지 : 약 2100평
- 법당, 산신각, 용왕당, 기도장, 석탑, 범종
- 가액 : 전세 보증금 1억 (월세없음)

010-6717-6826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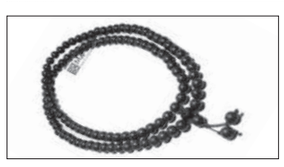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한 철 사는 건데 마음을 좀 넓게 쓰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탁 깨달을 수 있는 묘법은 없나요?

질문 마음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알지만 뭔가 좀 탁 깨달을 수 있는 묘법은 없는 것일까요?

답변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러 절로 들어갔는데요, 절에 인제 선지식들이 계신 데는 모두 선사님들이죠. 그래 인제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강원에 가는 사람들은 학인들이고, 모두 그 뒤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선을 공부하는 스님네들이죠. 근데 스님네들이 한 다섯이서 떡 들어가니깐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니깐 "들어오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끈 못 봤느냐? 새끼를 매 놨는데 그 끈을 못 봤느냐?" 그러니깐 새끼도 보고 방에 앉아 계신 어른도 보고 그랬다고 하더랍니다. 허허허. 그러니깐 '이놈 꽤 저거 하구나.' 그랬는데 넙죽넙죽 들어가서 앉으니깐 어떡합니까.

그러니깐 "들어오지 못할 데를 들어왔으니깐 한번 맞아라." 그러고선 주장자로다가 한 대 치니깐 "아이, 그거 참! 자리가 편안하더니 그 주장자가 들어오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제 주장자가 부족해서 스님이 주장자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인제 그 다섯 사람이 죽 앉아 있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이, 저희는 지금 귀신 방귀씨를 못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깐 "귀신 방귀씨를 찾으러 왔어? 그거를 바깥에서 찾으러 다니느냐?" 그러니까 "바깥이고 안이고 간에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은 있다 하는 소리가 "아, 귀신이 말을 하는데 여기 가면 방귀씨를 찾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 귀신이 말을 해?" 그러고선 또 잠자코 있었더니 또 한 사람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니, 귀신이 하는 소리가 거길 가면 아주 기르기도 좋고 아주 키우기도 좋고 참 좋은 데라고 그러면서, 거길 막아 놨으니까 그걸 박차고 들어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이, 거기 있는 사람 하나 부르더니만 "한 방망이씩 때려 봐라, 튀나. 매가 튀나 때려 봐라." 그러니깐 그냥 한 방망이씩 가서 안기거든요. 한 방망이씩 안기니까 그 맞고 하는 소리가 "어이구!" 그러면서 "방귀씨도 때리니까 아프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깐 "그럼 방귀씨는 얻었구먼." 이러니깐 "아, 방귀씨는 얻었는데 이거 방귀씨를 기를 줄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방망이 더 때려 봐라." 그러니까 벌떡들 일어서면서 하는 소리가 합장배를 하고는 그냥 고요히 절을 하더랍니다.

그래 절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절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고이 기르고 어떻게 먹여서 잘 기를 수 있나. 방귀씨를 말입니다. 귀신 방귀씨를 얻기는 했는데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으며, 뭐를 먹여야 하며, 그거를 알러 갔는데 방망이로 때린다니까 또 한 번 맞았더라면 좋을 걸 안 맞고는 일어서서 곱게 절을 하더랍니다. 무슨 연고로 그렇게 곱게 절을 했는지 모르시죠?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막론해 놓고 더불어 같이 부처입니다. 왜 부처냐. 자불을 누구든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바로 자불이자 불성이자 그게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장자자 에너지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내 본마음이, 예를 들어서 한 배가 고프니까 소나무 가지를 잘라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소나무 모가지를 이렇게 자르면 그 가장자리에 그거만 남죠? 그러면 소나무도 내 대가리 자른 것처럼 아플 거란 말입니다. 아프고도 쓸모없이 되죠. 그래서 맨 끝에 가장구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구 하나 먹어. 가장구. 이렇게 만났으니 만났으면 인연인데 윗도린 자르지 말고 아랫도리만 잘라 먹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무가.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참 미안하고 고맙다." 이럭하고선 잘라서 물을 빨아 먹으려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요. 가장자리, 그 회초리 가장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껍데길 벗겨 버리고선 그 속에 든 그 하얀 거, 그 물만 빨아 먹고선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데도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세 모금만 마셔야지 더 마시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세 모금이란 뭡니까. 우리가 우주 삼세를 말해도 되고 삼 일을 말해도 되고 그런 거죠. 삼 년을 말해도 되고 삼십 년을 말을 해도 되고. 그렇게 된 도리를 말합니다.

근데 "세 모금만 마시지 더 마시면 안 돼." 이래서 그걸 먹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야, 물도 살아 있고 물도 이게 모두…. 우리가 물, 불, 흙, 바람 이걸로 모두 생명들이 돼서 모습들이 생겼지마는 이 생명들이 생기고 이 모습들이 생겨서 하는 것도 이 지수화풍 때문에 모두가 먹고 살고 우리가 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이러니까 그 이유를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모금을 먹고선 세 모금을 한 모금으로 그냥 때웠죠. 때우고 나서 한 모금을 먹고 '이건 세 모금이 다 들어갔네.' 이러곤 하니깐 '그 삼세가 한꺼번에 들어간 셈이네.' 또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뜻으로.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배워 나간 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터지는 것이 그땐 성불이 되고, 처음엔 견성이 되고 성불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깐 여러분들도 그냥 한꺼번에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하나하나, 살아나가면서 하나하나 '이 먹는 것도 먹는 사이 없이 먹어지는 거로구나. 우린 모두 탤런트 역할을 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런데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부족지 않고 부족하고 이게 있구나.' 이거는 누구가 하려고 아무리 앨 써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끔 아무리 할래도, 잘 살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억지로는 못 해요. 자기가 타고 나온 것을 가지고만 사는 거죠. 이천 원 가지고 나왔다면 이천 원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이천 원도 삼천 원도 어려움도 부족함도 이게 전부 없어지는 거죠. 자유껏 사는 거죠. 그러니 자유자재하시고 잘 사십시오. 그러니깐 여러분이 잘 그걸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살림하면서도 '이 살림이 도(道)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몸과 마음 자유스럽게 쓰고 싶어요

질문 공부한 도인들은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신다는데 저희 같은 범부들도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몸과 마음을 갖고도 왜 마음대로 안 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도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쓰고 싶습니다.

답변 그러니깐 자유권을, 인간에게는 다 자유권을 줬는데, 마음을 자유권으로 쓰라고 줬는데 자유스럽게 쓰질 못해요. 이게 적다 크다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속으로는 이게 적다,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만약에 급한 일에는 판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 18면으로 계속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막론하고 더불어 같이 부처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예전에 6 · 25 때 모래톱에서요, 총이 막 날아오니깐 총알이 다리에 맞아서 다리가 그냥 이렇게 부러졌는데도 막 그냥 뛰는 거 있죠, 급하니까.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마음이 느긋하면 좀 천천히 걸어가게 돼 있고, 또 마음이 누긋하면 아프다고 그냥 꾀를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아파도 그냥 '일어나야지. 할 건 해야지.' 할 때에,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때 바로 일어서집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뭐하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차차분해선 그냥 깔아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난 이제 죽는다.'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거 많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죽으니까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인젠 죽었다.' 하는 거요. 이 몸속에서 작용을 해 줘야 할 생명들이 '나는 죽었다.' 하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위 공장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관리인 또는 간장 관리인, 소장 관리인, 대장 관리인, 콩팥 관리인, 방광 관리인, 척수 · 척추 관리인, 이 모두의 관리인들이 다 폭삭 그냥 죽는 거예요. 마음이 말입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 이건 첫째 선두자가, 앞에 선 선두자가, 마음이 '야, 이건 다 죽겠구나. 인젠 죽었다.' 이러면 그 밑으로 쭐쭐 내려가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그렇게 남이 이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이겁니다. 악하고 선한 거를 다 놔야 된다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 거기에 한데 합해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정히 급하고 그럴 때도, 이 국난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런 걸 알면은, '회사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벌써 미리미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 인제는 꺽어지고 다 저거 한 연에 이걸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들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부지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면 뭐가 싸울 게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만난다 하더라도, 자식의 인연을 짓는다 하는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인연입니다.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인연이 되고 무쇠는 무쇠대로 인연이 되고, 시장에 가면 사과는 사과대로 인연이 되고 배는 배대로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끼리 한 가정이 됐다면 그 가정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내 탓으로, 각자 내 탓으로 돌리고 둘 아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 해 줄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 해 줄 수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화합이 되고 부유하게 늘어 가고 안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왜 만날 그렇게, 그렇게 좁게 그냥 자기 마음을…. 꿈을 꾸고도요, 그것도 맘대로 못 해요. 아, 그거 그냥 주인공에다 탁 놓고 '그것도 거기에서 화해서 보이는 거니깐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탁 놓으면 될 거를 '이게 꿈이 나쁘니 무슨 일이 생길까. 뭐가 저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게 팔자 운명이에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붙지를 않아요.

이게 그걸 모르면 팔자 운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고, 현실도 공했다. 그저 마음에 따라서 육신이 움죽거리니까 어떤 거 움죽거렸을 때 내가 움죽거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사 게 다 그렇죠. 그래서 반가워서 악수를 하니까 "어떤 게 먼저 가더냐?" 하니까 마음이 먼저 가더라. 그러니깐 손이 그냥, 그냥 따라서 가더라. 그러니까 몸뚱이 하나 움죽거리는 게 전체예요. 전첸데 그렇게 움죽거리는 걸 잘 리드해서 잘 다스려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잘 내면 될 거를, 요만한 것도 잘 못 내고 크게 만들어선 그냥 불려 가지고는 오히려 그냥 자기가 상처가 나고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마음을 안유시켜서 편안하게 만들고 사는 게…. 한 철 사는 게, 캠핑 나와서 한 철 사는 게 그렇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냄비가 있으면 냄비대로 솥이 있으면 솥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한 철 사는 건데. 그렇게 좀 마음을 넓게 쓰고 그렇게 한 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에서 탤런트들이 한 철 고렇게 영화 막이 내리면 그뿐인 거를, 뭐, 갈 때 거지 역을 맡으면 어떻고 머슴 역을 맡으면 어떻고 대왕 역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칼잡이 역을 맡든 도둑 역을 맡든, 어떤 역을 맡아도 그 단순하게 한 막이 내리면 그뿐인 줄 알고 있으니깐 그거 아무렇게나 나가도 편안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길다고 몇천 년 몇만 년 살고 이러는 줄 알고 이 모습을 가지고 그냥 모두 이거는 차곡차곡 욕심 많게 쌓아 두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죠, 모두가. 이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낑겨 둔 뭐가 있다면 빨리 내줘야 마음이 시원하니까 빨리빨리들 나누어주는 것이, 또 마음도 역시 그래야 우리가 회향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집을 지어서 끝을 마쳐도 회향이고, 밥을 지어서 밥을 먹고 나도 설거지를 다 해야 회향입니다.

저 나무들도 보세요. 나무들이 말입니다, 다 자기 뿌리에 그냥 몽땅 다 달려 있는데 싹이 무슨 걱정입니까, 글쎄. 바람이 부니 걱정입니까, 비가 오니 걱정입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뿌리에다가, 뿌리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싹을 죽이게 되면 요 뿌리가 더 내려서 깊이 박혀요. 그것도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그래요. 흔들흔들해서 비가 와서 넘어질 것 같으면 그냥 뿌리를 그냥 사방에다가 그냥 넓게 박아요. 저런 나무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고, 올해는 많은 비가 오고 많은 장마가 드니까 내가 뿌리를 튼튼하게 뒤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실천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서 어떡합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남이 이러고 저러는 대로 쓸리지 말고
자기 주장자를 세워라.

짜장면 소릴 내가 잘하는데 하여튼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다면 요다음에 짜장면 얘기를 해 드려도 그 먹고 싶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들은 게 있으면 먹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러한 말씀을 그전에 하셨는데 나도 좀 해 볼까.' 이렇게,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맛이 들어 그 줄을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딛다 보면 이 세상을 두루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 방편입니다. 방편이자 실천입니다, 그게.

천도재 지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질문 조상 천도재를 지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마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상을 안 차려도 우리가 마음을 잘 낸다면 천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난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없는 돈도 해 가지고 그냥 조상들을 위해서라든가 뭘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데 "아이고, 당신네들이 부처요." 내가 그럽니다. "이러는데 어찌 부처가 안 되리." 이러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가 언젠가 그랬죠. "빚을 내서 가져오지도 마라. 당신네 고통이 내 고통이다." 이랬죠. 또 때로는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거를 남에게 줘서 보내는 것도 있어요. 왜 남을 줍니까? 내가 가져와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게 공덕이 다 되리라고 생각도 못 할 텐데 어떻게 남을 줘서 그 심부름을 시킵니까? 그 심부름값은 안 빠지는 겁니까? 심부름값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 쌀을 그냥 무겁게 이고 와도 그걸 스님네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이네 공덕이 사해질까 봐. 초 한 자루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무겁게 그 뭘 들고 와도 아주 그냥 "고생하는 끝에 좀 더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성을 들이는 거를 딴 사람 통장에다 넣어 준다, 대신 해 달라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 무효입니다. 어떻게 그게…,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문 바깥에서 저, 돈 한 잎 쌀 한 되박을 이렇게 가져와도, 그것만 가져와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왔으면 그거를 벌써 문 바깥에서 아니라 문 안에서 생각하는 반면에 벌써 부처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깐 일체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마음 나쁘게 쓰고 이렇게 마음먹는다면 일체가 다 알게 되지, 그거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 꾀를 피지 마시고 그 항상 자기가 할 거는 요만한 거 한 푼이라도, 하다못해 요만한 한 조가리라도 가져왔으면, 그거 없는 집은 있는 집 백만 원보다도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올 때 정성스럽게, 마음을 정성스럽게 넣어서 정성스럽게 갖다 놓으면 그거를 그 집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또 써 주는 스님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집 스님네들은 남의 돈은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그냥 그저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절대 요만한 거 하나 허탈히 쓰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알고 가기 때문이죠.

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일체제불과 우주와 더불어 다 그냥 연락이 되고, 다 이렇게 연락이 돼서 예전에 그 부처님한테 연등부처가 "너 이다음에 태어나면 석가가 되거라." 이러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기를 준 연등부처가 따로 있고 수기를 받은 석존이 따로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금 자기의 불성이 발현이 되고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와 둘이 아니게 그게 상봉을 한다면 모두가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보살로 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이렇게 되면은 일체제불과도 같이 찰나찰나 통신이 되고, 찰나찰나 모이고, 찰나찰나 나투고 이렇게 하는 까닭에, 그것은 모두가 합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하니깐 모두가 합의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불이 연등불로 화해서 수기를 준 거지, 누구가 석존한테 "너 석가가 되거라." 그러고 다른 부처가 이 부처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불의 연등불이 연등불로 화해서 그렇게 수기를 주신 거기 때문에 수기를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지만 그대로 연등불은 연등불이다. 이 세상에 연등불로 화해서 수많은 일체 중생들을 다 인연을 지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히 없어서 천도를 못 시키시는 집들은 전부 자기 주인공에다 놓으세요. 모든 거를, 죽은 사람들이 조상들이라면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걸 한데 놓으란 말입니다. 거기다 놓고 자꾸 가다 보면 조상들도 자기가 공부하는 대로, 차원대로 그걸 알고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좋아서 공부하는 자식을 도와서 이렇게 자꾸 저거 하고, 외려 자꾸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줘요.

조상도 착을 가지고 습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었으니 불에 들어가면 타 죽을 줄 알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줄 알고, 또 내 이 몸뚱이를 건너야 되는데 내 몸뚱이 속의 수많은 그 벌레들이 왕창 커져 가지고는 세균들이 그냥 모두 널려 있으니 그걸 밟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모두 넘어설래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 공부를 하걸랑은 전부 거기다 넣으세요, 둘 아니게. '주인공 한자리에서 전부 할 수 있잖아.' 하고 다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조상들이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천 명이든 그냥 다 자기 아는 것만치 다 알게 돼요.

재사 지낼 때도 왜 내가 우주떡 하나만 놓고 해라 이랬느냐 하면, 그건 떡이 떡이 아니다 이겁니다. 살아 있을 적에 요것조것 그냥 밥반찬을 놓고 밥을 놓고, 이렇게 차려 놓고 먹던 그 습이 없어져야 이 둥글게 그냥 부처님 자리로 한자리를 갈 수 있을 텐데, 한자리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령들한테 그 모든 걸 말없이 가르쳐 주면은 그렇게 좋아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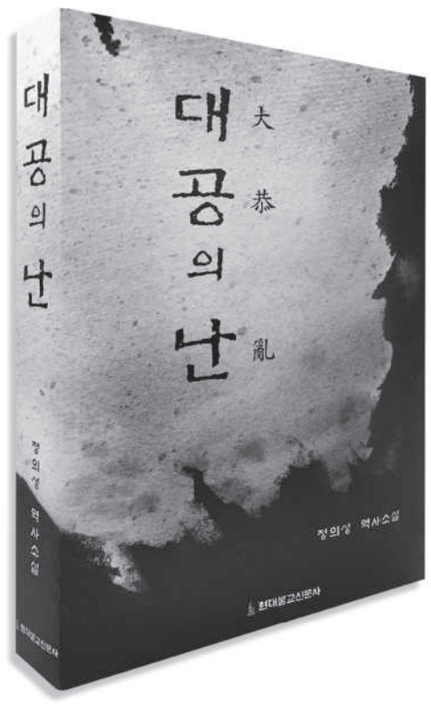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거 뭐, 돈이 드니 못 합니까. 뭐, 자기 뿌리를 자기가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나무는 아주 푸르르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두 놓고 가면, 한자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천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서 그대로 그냥 승천을 하는 거죠.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두 개의 태양



가자
한눈팔지 말고
똑바로 가자

두 개의 태양이
우리를 지켜준다

지혜와 진리의 태양
자비와 사랑의 태양

가자
영원의 하늘로
어서어서 가자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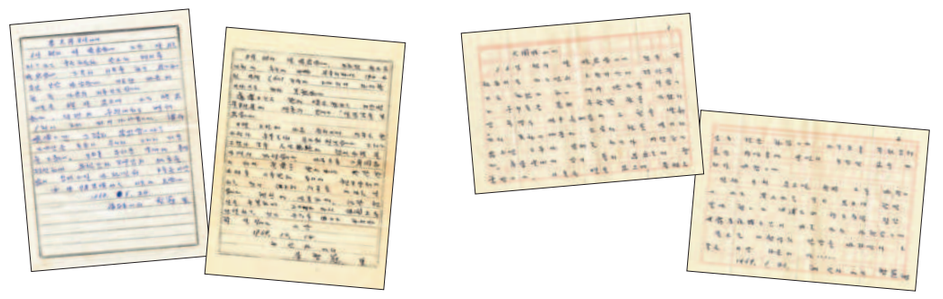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마차' 그림이다. 이 그림이 돋보이는 이유는, 두 개의 태양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하나의 태양이 새겨진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일곱 개의 태양을 찾았고, 세 개의 태양, 다섯 개의 태양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두 개의 태양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진도 대충 찍고 탁본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옆에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마차' 그림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아차!' 싶었다. 두 개의 태양과 '하늘마차' 두 영역이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생각지 못했다.

싸이말루이 따쉬에서는 '하늘마차' 그림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그림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이곳은 보통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아니라 종교적 기능을 담당했던 특별한 장소였던 것 같다. 김호석 교수는 "암각화는 일종의 종교화(宗教畵)"라고 말했는데, 특히 싸이말루이 따쉬의 암각화를 보면 그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상의 삶을 넘어선, 영혼의 향상(向上)을 향한 간절한 염원(念願)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올곧게 하는 등불이 되고 있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⑯ 지관 스님 2

늘 부처님 法으로 말씀하신 스님



〈서신 1〉
대원성에게
16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진주 강화 등지로 다니면서 오랜 기간에 정성껏 기도하였다니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무한한 힘을 가졌지만 무명의 먹구름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모두가 뜻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별일 없으며 종정스님도 편안하십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품안 광명속에 살면서 보람된 삶을 가지길 바랍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오길 바랍니다. 나도 부산 가는 길 있으면 한번 갈까 합니다. 진포 2동 항도중학 뒷산 감로사 주지스님이 바로 나의 사형입니다. 끝으로 대원성의 건강을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다음에 또. 1969. 1. 21. 해인사에서 지관 회답

〈서신 2〉
8일 편지 잘 받았습니다. 모처럼 찾아 온 기회에 추수에 바빠 부득하게 17일 아침 일찍(6시) 농장에 오게 되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 처사님도 함께 무고한지? 지난번 불교신문에 결혼의 안내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젠 그전과 다른 위치이며 의무도 한 가정의 주부로서 무거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人生行路(인생행로)에 겪어야 할 불가결의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二身同志(이신동지)가 되어 苦樂(고락)을 함께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룩함과 동시에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불자의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며 또한 현실을 극복하여 거기에 다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들 불자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만. 1969년 12월 14일 해인사에서 이지관

지관 스님은 1967년 부산불교 청년수련회에서 처음 뵈었다. 인연을 짓고 난 후에 부산에 오실 때면 늘 찾아주셨다. 연꽃모임에 각별히 마음을 써주셨다. 회원들의 법명도 많이 지어주셨고 연꽃모임 특별법회 때에도 법문을 해주셨다. 새로 나온 책이나 공부가 될 만한 것들이 보이면 연꽃모임 회원들에게 그때그때 부쳐주셨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셨다.

스님은 처음 뵈었을 때부터 특별한 인상이었다. 항상 한 손에는 펜을 들고 계셨다. 늘 글을 쓰고 공부하며 사셨다. 항상 뵐 때마다 좋은 법문 주시려고 애쓰셨다. 무엇이든지 부처님 말씀으로 이야기해서 대중을 부처님 가까이로 데려다 주셨다.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 한 번 주실 때에도 늘 짧은 법문 한 줄이 빠진 적이 없었다. 〈서신 1〉은 해인사 수련대회 후 진주 응석사와 강화 보문사 기도를 마치고 부친 서신에 대한 답신이다.

스님이 동국대 총장으로 계셨을 때, 일타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지관 스님은 끊임없는 노력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래서 오늘날 동국대학교 총장 자리에 있는, 그야말로 자격이 있는 스님이야"

스님은 우리 부부가 불교청년회에서 만났다는 것에 늘 각별한 마음을 써주셨다. 해인사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길목에서 스님을 만난 적이 있다. 옷에 잔뜩 흙을 묻히고 논에서 혼자 울력을 하고 계셨다. 날이 저물어 돌아가려는 참이었다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 주셨다. 격의 없는 모습에 마음이 훈훈했던 기억이 난다. 스님께서는 결혼한 후부터 더 많이 마음을 써주셨던 것 같다. 늘 우리 부부의 행복을 기원해 주셨다. 말이든 마음이든 늘 부처님 법으로 전해주셨던 스님의 모습이 그립다.



1981년 연꽃모임에서 법문하는 지관 스님. 항상 뵐 때마다 좋은 법문 주시려고 애쓰셨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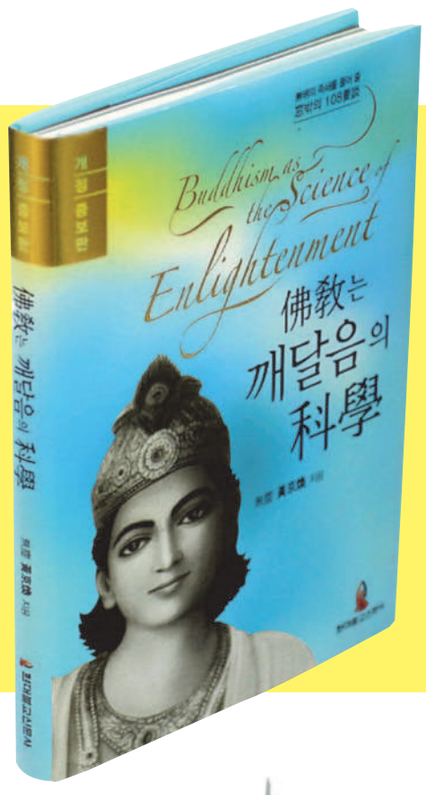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을 팔아 내일의 죽음을 사고,
잘 배운 지혜로운 제자는 오늘의 삶을 불태워 내일의 죽음을 불태워 버린다. (본문 중에서)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개정증보판과 영문판 동시 간행

"무명(無明)에서 비롯한 '나'라는 관념(觀念)을 깨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면
생로병사(生老病死)란 꿈속의 꿈이요.무명에서 비롯된 '나'라는 관념의 족쇄에 묶여 있으면
그 나라는 존재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이러한 무명(無明) 중생(衆生)의 삶을 처절한 고통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중생의 삶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틀고 있는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마치 독사와 같은 이 흉측한 Ego(탐, 진, 치)를 밖으로 끌어내어 버리기만 하면,
텅 비어진 그곳에 온전한 우주의식이 충만할 것이니,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영원하고 불멸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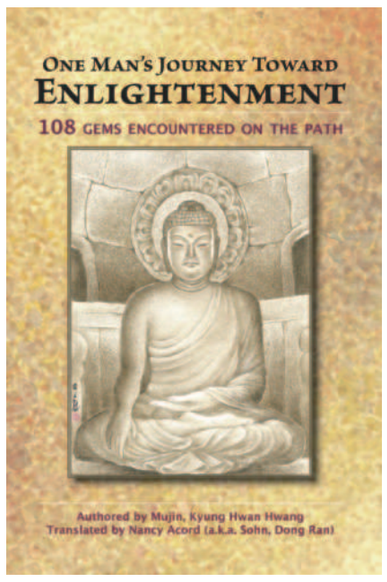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창밖의 108요담

황경환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 신국판 / 304쪽 / 값 15,000원



**근본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핵심 대의에서부터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불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저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 온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영원한 자유의 길을 펼쳐 보인다.**



"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판 발행, 아마존에서 페이퍼백, 전자책, 오디오북 발매중!

저자 황경환이 한 생애를 투자하여 빚어낸 '108개의 그물코'. 깨달음의 여정에서 그가 건져올린 108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책은, 허깨비 장난 같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구도자가 '법의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어부 황경환의 평생에 걸친 노작이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에는 천 코 만 코가 있지만 정작 고기는 한 코에 걸리는 법"이라는 어느 선지식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를 품게 된 구도자가 걸려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의 그물코를 장만하게 되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이라는 영문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불교의 핵심 대의는 물론이고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저자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보석들"이다.

아홉 살 때, 선박업을 하시던 부친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신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신다. "환아, 너에게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만난 '죽음'이라는 화두는, 그의 인생 여정과 더불어 확대증폭을 거듭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20대 후반에 해상유류판매사업을 하던 그는 바다에 나갔다가 돌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에 위기를 모면, 밤새도록 성난 파도와 싸우느라 생사를 넘나들다 겨우 살아남게 된다. 재산이라고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고, IMF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환율 인상으로 부채가 두 배로 늘게 되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갑상선암이라는 병마와도 싸워야 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 모든 둑카((苦)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면서, 인연법에 따라 불교와 조우하게 된다. 이 책에 제시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초기불교의 경전들과 불교 자체가 과학임을 입증해 보이는 현대의 양자물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책 속에는 불교의 진리를 과학으로 입증해 보이는 과학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시공간의 세계를 받아들인 과학자 알랭 아스페, 시공간과 비시공간의 영역이 함께 공존한다는 이론을 발표한 고스와미 박사, 아이작 뉴턴 이후 객관 세계의 담을 무너뜨린 '불확실성의 원리'의 하이젠베르크, 카오스 이론과 나비 효과의 에드워드 로렌즈 등이다.

오감과 오감이 주는 쾌감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나'는 종 노릇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태어난 존재의 실존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찰해야 한다. 고타마 붓다가 45년간 인류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의 핵심 공식이다. 이 책은, 불교의 이 핵심 공식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해설이고 예화이고 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 문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 : 1688-9099(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총판 운주사 02)3672-7181
비움과 소통 031)945-8739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회두피안 NEWS http://www.hdpannews.com